

QR코드 바로가기 >>



제32회 기독교학문학회

융복합과

기독교학문

패널 **자연과학** 명지대 박희주 교수 **인문** 한동대 손화철 교수
사회과학 인천대 김홍섭 교수 **공학** 한남대 박문식 교수

2015.11.7 (토)

오전 10시~오후 6시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대학원생/분과 발표), **퇴계인문관**(기조강연)

당일 진행시간

09:30 - 10:00 등록 (호암관)
10:00 - 12:00 대학원생 세션 발표 (호암관 3층)
12:00 - 13:00 오찬 / 등록2 (퇴계인문관)
13:00 - 15:30 개최식 및 우수논문상 시상식 (퇴계인문관)
주제발표 및 토론
*기독교학문연구회 윤리규정 개정안 발표
15:30 - 17:50 분과별 세션 발표 (호암관 3,4층)
18:00 - 19:00 만찬

주최 기독교학문연구회, 기독교경영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교육정책연구원,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한국기독교철학회
주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 새로남교회

*신청은 당일 등록대에서만 접수합니다.
(등록비 20,000/ 대학원생 및 학부생 10,000원)



과학적 지식은 잠정적

현대인에게 자연과학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모든 진리의 모형, 모든 발전의 모태, 모든 문제의 해결사란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

이런 현대과학에 대해서 기독교도 일종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과학에 대해서 오늘의 기독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 과학적 지식을 모든 객관적 지식의 표준으로 인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1-1)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하거나 (1-2) 증명하려는 시도와 (2) 과학적 지식과 성경의 가르침은 서로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므로 상호불간섭,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1)의 입장은 성경의 어떤 부분은 무지의 소치나 신화로 간주하게 되고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1-2)의 입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과학적 지식은 원칙적으로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음을 전제하되, 양자 간에 나타나는 차이와 갈등은 성경이나 과학 지식 그 자체의 오류 때문이 아니라 현재 상태의 성경해석이나 과학적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취급한다. (2)의 입장은 그리스도인인 면서 과학자인 사람들 대부분이 취하는 것으로 학문 활동과 신앙생활을 큰 갈등을 느끼지 않고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느 입장도 과학적 지식 그 자체의 권위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과연 그렇게 절대적인가?

우선 용어부터 분명히 하고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은 곧 자연과학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이란 것도 있고 후설(Edmund Husserl) 같은 철학자는 심지어 '엄밀한 과학으로서의 철학'이란 표현도 사용하였다. '과학'은 그저 '이론적 지식'이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성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episteme)은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반면에 주로 경험에 근거한 상식(doxa)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했다. 주후 1세기에 전파된 '십자가의 도'가 그런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기독교가 불안한 관심을 갖는 것은 과학 일반이 아니라 자연과학이다. 물론 자연과학이 곧 과학이고, 모든 확실한 지식은 자연과학처럼 엄밀하거나 자연과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관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유물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혹은 철학적 주장일 뿐이다.

자연과학은 '자연의 동일성' (uniformity of nature) 을 전제한다. 모든 자연현상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태초로부터, 어디서든지 물은 0도에 얼고 100도에 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제는 이제까지 한 번도 반증되지 않았으므로 자명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반드시 타당하다는 보장은 없고, 그런 전제로는 정신현상과 사회현상은 설명될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 이 주장한 것처럼 사랑, 고통, 죽음, 윤리, 의미 등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런 성질이 동일성을 갖고 있지 않고 따라서 자연과학의 범주 바깥에 있다.

전통적으로 '과학'이란 이름을 가지려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논리적이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실증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은 0도에서 언다. 그러므로 0도에서 어는 것은 다 물이다"는 발언은 비록 실험을 통해서 사실로 드러났더라도 과학적 발언은 아니다. 논리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모든 귀신은 뿔을 가지고 있다. 산신령도 귀신이다. 그러므로 산신령도 뿔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적으로 옳지만 실증할 수 없으므로 과학적 발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두 조건도 지금은 자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해 놓은 학문 공동체의 약속일 뿐 그 자체로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경험을 무시하고 논리적인 타당성에 큰 무게를 두었으나 종교개혁 이후로 실험이 과학적 지식에 필수적이 되었다. 앞으로 그 조건들은 얼마든지 바뀌질 수 있다.

물리학자요 철학자였던 포퍼(Karl Popper)는 모든 자

연과학적 설명은 '가설연역적 방법' (hypthetico-deductive method)에 따라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에 온도가 0도일 때 물이 어는 현상을 보고 "모든 물은 0도에서 언다"는 결론을 내리는 귀납적 방법(inductive method)이 아니라, 과학자는 우연의 경험이나 창조적인 사고를 통하여 먼저 "물은 0도에서 언다"고 가정하고 그 가정을 반증(falsify)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가설이 실험을 통하여 한 번이라도 반증되면, 즉 0도에서 물이 얼지 않은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가설은 폐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가정은 폐기될 때까지만 타당한 (valid) 이론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이론도 영원히 폐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모든 과학적 진리는 잠정적으로만 타당하다.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



물론 자연과학은 전혀 믿을 수 없고 헛된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기독교적이 아니다. 그야 어떻게 발견하고 누가 주장했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며 (Holmes), 진리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Calvin). 과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과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도 독단적이 될 이유가 없다.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주간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회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편집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김정호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박상은	인양생명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신국원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우종학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학 신학박사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前)MBC 워싱턴 특파원 및 뉴스 앵커, iMBC 사장, CGN TV 대표	
실무진	황정희	JnD 디자인 실장, 월간 『과학과 기술』, 계간 강원랜드 『다시, 꿈』, 『위즈플러스』, 격월간 『국악누리』 등 다수 디자인
	신효영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 총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교수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종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조정민 목사



황정희 디자이너



신효영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지교회 목사)
	감사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생명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1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Contents

WORLDVIEW · NOVEMBER · 2015

WORLDVIEW

2015년 11월호 WORLDVIEW 통권 185호



표지인물 김정섭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COVER STORY 06 커버스토리 살아있는 한국 교육의 역사, 김정섭_인터뷰어 신국원

- SPECIAL**
- 02 대표주자 과학적 지식은 잠정적_손봉호
 - 16 기획칼럼 창조와 진화-누가, 언제, 어떻게_박희주
 - 20 기획칼럼 창조론 연구의 다면성_양승훈
 - 25 기획칼럼 교회가 창조과학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_우종학
 - 30 기획칼럼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과 대면 후에_최승언
 - 34 기획칼럼 창조과학과 복음 변증, 그리고 교회 교육_이택환
 - 38 기획칼럼 창조과학의 성경해석을 말한다_전성민
 - 40 편집인추천 함께, 더 깊고도 넓게

COLUMN 42 메디컬칼럼 Cure & Care 기다림의 끝_최현일

- CULTURE**
- 46 땀속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프랑켄슈타인
 - 62 편집# 도리
 - 64 유머 치과병원에 간 환자_손봉호

- BOOK REVIEW**
- 48 서평 시골교회, 도시교회_이창국
 - 52 서평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_전요섭
 - 56 책소개 문서선교사, 웨슬리 웹트위스_신효영

- NEWS**
- 60 사무국 뉴스
 - 61 11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보조 이종원
사 진 신효영
일러스트 김규상, 신선영
제 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 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 화 02-754-8004
팩 스 0303-0272-496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 102호
(한강르네상스빌 A동)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페 이 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https://www.facebook.com/worldviewmagazine)
블 로 그 <http://cworldview.blog.me>
이매거진 m.worldview.or.kr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한국 교육 50년의 산 증인, 김정섭

📍 인터뷰_신국원(충신대 교수, 세계관동역회 실행위원)

“역사란 사람들의 살냄새 나는 이야기다.”

한국 교육 50년의 생생한 역사, 은퇴 이후에 여든이 넘은 지금까지도 기독교교육을 위해 달리고 계신
김정섭 장로님(전 대광고, 영락교 교장이자 현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신국원
(이하 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처음 뵈었을 때 영
락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향이 어디신지요.**

김정섭
(이하 김)

경북 의성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지요.
8남매의 다섯째인데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도우면서 자연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모교회가
1905년에 창립하여 금년에 115년이 되었습니다.
면도 아닌 리 소재지인 시골에 어떻게 교회가 들어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해요.
중학교 6학년 때 지금으로 따지면 고3일 때 한국전
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전
상을 입고 제대하여 귀향한 뒤, 54년에 대학 진학하
기 전까지 고향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에 와서는 지
금까지 새문안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신 교육학을 전공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선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물질 등을 대
상으로 하기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가 되
기를 잘했다 싶었습니다. 교사가 되려고 교육학과
에 들어갔죠. 대학과 대학원에서 6년을 교육학을 공
부했습니다. 그때 훌륭한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났
는데 임한영 박사, 정석해 선생님, 최현배 선생님,
직접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백낙준 박사나 신과
대학의 지동식 목사님 등 그 시대의 존경받는 분들
을 많이 만났지요.

신 갑자기 연세가 궁금해집니다.

김 1931년생이니 85세지요. 유소년기는 일제



강점기 말기로 일제의 착취로 가난에 굶주렸고, 청소년기에는 광복 이후 혼란으로 인하여 제대로 공부를 못했고, 한국전쟁에는 학도병으로 지원, 중군하여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진격했었죠. 그때 중공군의 참전으로 통일이 좌절되고 대퇴부골절상을 입으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제대 이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대광학교와 영락학교에서 교사, 교감, 교장을 지내고 은퇴했지요. 지금 돌아보면 모두가 감사할 일 뿐이네요.

신 ■ 살아 있는 한국의 근대사이십니다. 이후 대학원을 마치시고 바로 교사 생활을 시작하셨는지요.

김 ■ 61년부터 73년까지 대광고등학교에서 13년을, 이후 영락에서 정년까지 38년을 교직에 있었습니다. 교원으로 재직한 1961년부터 97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던 시기로 변화와 혼란이 거듭되면서 교육이 정도를 걸을 수 없는 시기였지요. 국민들의 정치·경제적 자유가 억압되고, 교육에서는 상급 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폐해가 많았습니다.

신 ■ 처음 가르치신 제자들의 연배가 제 또래겠습니니다.

김 ■ 부임 당시의 대광은 전성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르친 학생들 중에 뛰어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60대쯤 되었으니 그렇겠네요. (허허)

54년에 서울에 올라와서 강신명 목사님이 계시는 새문안교회에 등록하고 한 15년간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마흔하나에 장로가 되고도 교육부서에 쫓 있었었습니다. 7·80년대는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새문안교회 청년들이 잡혀가는데 심정적으로는 청년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제가 공직에 있고 교회 장로로서 이편에 서지도 못하고 저편에 서지도 못하고 고민했었습니다. 사회가 변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기까지는 교직에 있다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점차 사회가 변하면서 교육자로 제가 느낀 것은 ‘그렇다면 학교가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겠는가, 기독교사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길러야하는가’였습니다. 90년에 ‘교과 지도를 통한 신앙교육’이라는 연구발표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일이 계기가 되어 웨슬리(W. Wesley) 선생님과 신국원 박사님과 만나게 되었지요.



신 ■ 선생님께서 영락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에도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94년에 귀국 후, 갑자기 웨슬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면서 뵈었지요. 그때 선생님이 교과과정 개발할 것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국정교과서를 사용해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요?

김 ■ 대광학원에 있을 때부터 그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독교학교교육이 너무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교목실은 교목실대로, 수업은 세속적 인본주의에 근거한 수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어떻게 통합하는가’가 우리의 과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과정이 있으니 이것을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할 때 기독교적으로 내용을 다루어 보자, 분명 기독교와 관련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하고 시도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과 한 1년 동안 교과서를 분석했습니다. 개념, 단어, 명제, 인물, 사건, 작품, 주제 등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려내어 표를 만들고 학습지도안 시안에 넣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1년을 실행하고 90년에 연구발표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런 시도는 극히 초보적인 것이었는데 웨슬리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묻더군요.

신 ■ 그런 발표를 할 때, 다른 기독교학교도 초청을 하셨나요?

김 ■ 네, 기독교학교연합회의 연례계획사업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전국에 있는 회원학교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 진행했었지요.

신 ■ 그렇다면 장로님께서 교육 일선에서 은퇴하신 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섬기고 있는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그때에도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계신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 연합회는 1952년에 부산에서 ‘기독교학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어 지금의 한국기독교학교연합

회로 개명되었습니다. 1950년 6.25전쟁으로 학교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해서 피난학교를 열었을 때 백낙준 박사가 문교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백낙준 박사와 당시 한국교회협의회(KNCC)의 총무였던 유호준 목사, 문창교회 김우현 목사가 주관이 되어 28개 기독교학교 책임자들이 모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으로 부서진 학교 시설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 이후 59년부터 교장 수련회 및 교목 연수회를 시작으로 64년도에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 기독교교육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기독교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신 ■ 현장에서 충분히 경험하시고 이제는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 있으십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김 ■ 기독교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는 일입니다. 사립학교 평준화 이후 기독교와 관련 없는 학생이 3분의 2 이상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이해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환경, 제도, 인간관계, 문화와 교수-학습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조성되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과를 성경적 관점으로 조망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교수-학습의 원리로서의 기독교세계관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육현장에는 교육철학이 없어요. 진, 선, 미 등 절대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은 없고, 경제, 기술 등 실용성 교육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에는 이와는 다른 철학과 원리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 철학을 기독교세계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 ■ 지금은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소속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김 ■ 7·80년대 이후 점점 늘어나 지금은 131개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130여 년 전에 세워진 미션학교와 광복 이후 설립된 교회와 관련된 학교들입니다. 기독교학교 역사는 네 시기로 나뉩니다. 초창기 설립부터 74년 교교평준화정책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 사립학교법 파동 전, 후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30년 기독교학교 역사에서 교교평준화는 기독교학교의 성격이 확 바뀌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선교의 기회가 확장된 것입니다. 무선배정으로 안 믿는 학생들이 더 많이 입학할 했기 때문입니다.



신 ■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독교세계관에서 교육철학을 찾으신다고요?

김 ■ 오늘날 기독교학교 현장에는 교육과 신앙, 즉 지성과 영성을 통합하는 교육과정이론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크리스천 오버만(Christian Overman)과 돈 존슨(Don Johnson)이 하나님, 창조, 인류, 도덕체계, 목적을 기독교세계관 통합모형 BWI(biblical Worldview Intergration)으로 삼는 방안과 반 브루멜른(Harro Van Brummelen)이 창조, 타락, 구속 등 구속사적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방안 등입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나라처럼 교과과정이 중앙집권적으로 주어진 경우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브루멜른의 방법에 매력을 느낍니다.

***편집자 주 :** 월드뷰 2014년 5월호에서 "크리스천 오버만"의 인터뷰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네이버블로그 '크리스천 오버만' 검색

신 ■ 아무래도 기독교적 교육의 교과과정 분야에선 제일 앞서가는 이론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 ■ 우리나라에서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체제안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안에서 기독교교육을 시행하는데 대한 이론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주어진 교육 내용을 교사 나름대로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재구성을 하는 일입니다. 물론 교사의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구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세계관으로 해당 교과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어야해요. 그래서 교사양성과 재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 ■ 기독교학교장들은 선생님의 그런 열심과 헌신에 얼마나 공감하시지요.

김 ■ 공감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고 입시준비에도 시간이 모자라니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개혁 의지를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데, 문제는 교장의 임기가 짧다는 데 있습니다.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교장의 정년이 62세, 임기가 4년, 한번만 중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학교에서 오랜 연차가 쌓인 분들이 교감, 교장이 되는데 정년 마지막에 교장 임기 4년을 빼듯하게 채울 수 있어 교육의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감 연수반을 별도 개설하고, 학교에 오래 계시는 교목님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현장에는 교육철학이 없어요.
진, 선, 미 등 절대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은 없고,
경제, 기술 등 실용성 교육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에는 이와는 다른 철학과 원리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 철학을 기독교세계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 ─ 더러 이런 의식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관심 갖는 교사들을 만나기 쉽진 않습니다.

김 ─ 그렇습니다.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연수회에서 '기독교적으로 가르치기' 관련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교단이나 우리 연합회에도 기독교 교사를 기르는 기관이 없지요. 미국의 개혁교단에서는 칼빈대 사범대학에서 양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고백으로 기독교학교를 섬기려고 오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을 연수할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교회학교가 없어졌거나 축소되고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있지요. 기독교에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고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교회로 오게끔 해야 합니다. 이 일에 첫 번째 열쇠는 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양성과 재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 ─ 교육 이념, 그리고 목표와 목적이 있고, 그 위에 교육철학과 세계관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 ─ 그렇습니다. 제가 85년도에 '기독교교육철학서설'이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기독교학교에서는 '기독교주의 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교육의 철학, 기독교 세계관적 접근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 틀에 따라 지식관, 학생관, 사회관 등을 도출할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학문적인 작업은 학자들이 맡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일본의 교장 선생님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거기서는 SCSBC(B,C주 기독교학교연합회)에서 작성한 교육과정안을 각 학교에서 재구성하여 적용하고 있었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전문적인 작업을 해주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 ─ 기독교학교연합회에서 일하게 된 동기와 연합회의 사역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김 ─ 교장으로 재직 중 연합회 임원으로 일하면서 학교연합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더 발전시키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퇴임 후에 이 일을 맡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2002년에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웠는데 특히 교사연수(재교육)제도를 확대개편하고, 교회와의 유기적 관계증진 등에 역점을 두고 봉사해왔습니다. 그동안 종교교과서를 세 번 개편하여 교육당국의 인정·승인을 받아 간행·보급하였으며 특히 지금 사용 중인 교과서 <종교와 삶>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 이외에 새로 개발한 교과서'로서 앞으로 보다 더 '기독교적인 교과서'를 간행할 수 있는 길을 튼 의의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다양한 연수를 합니다. 교장, 교감, 교목, 교과교사, 신임교사를 대상으로 일 년에 5~6차례 연수를 진행합니다. 매 연수회마다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고 교과교수-학습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연수 이후에 지속적으로 팔로우업(follow up)을 해야하는데 여력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몇몇 학교를 상대로 교과교육 연구반을 운영해보려고 해요.

*편집자 주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홈페이지 acsk.org / 대표전화 02)3674-4431

신 ■ 다음 세대나 교사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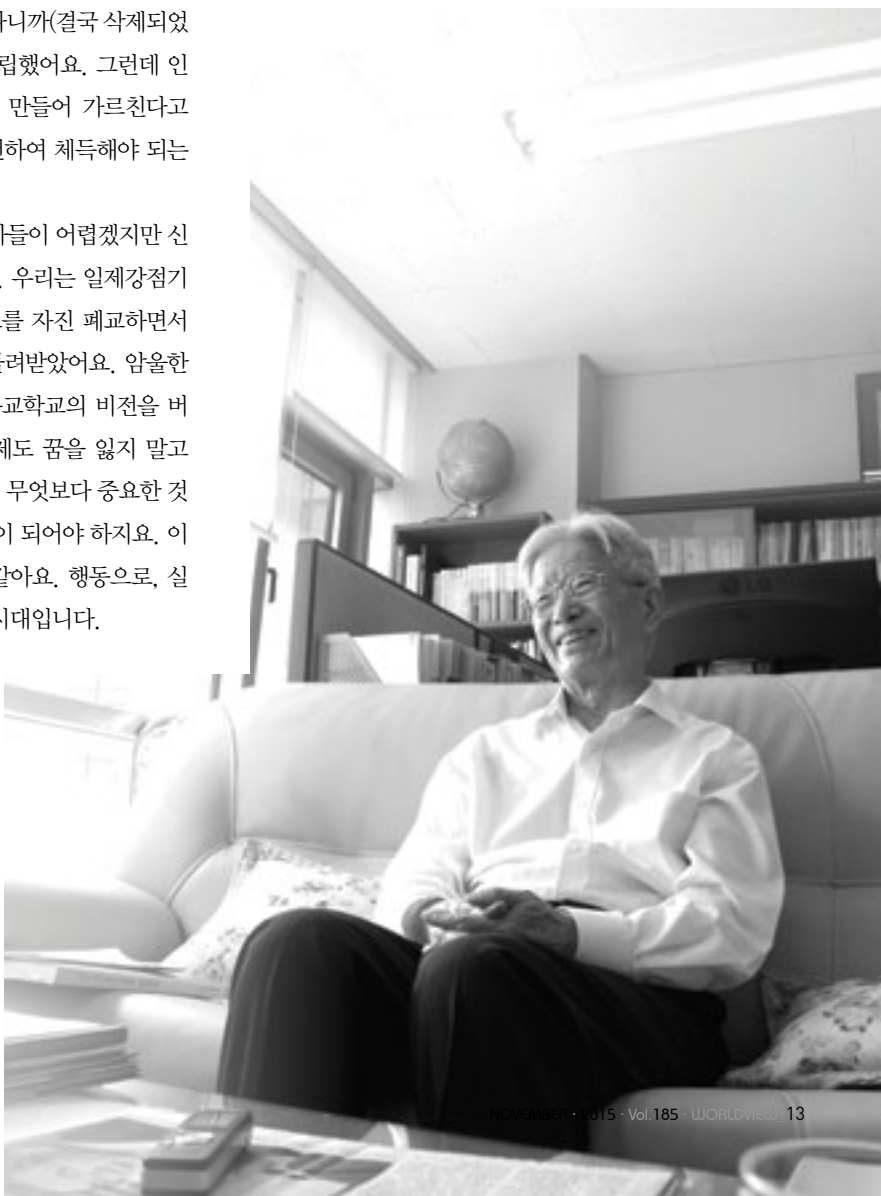
김 ■ 우리가 자랄 때, 우리가 교육할 때보다도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단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매스 미디어는 물론이고, SNS까지 영향을 주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고 부모들이 가정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란 걸 만들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인성교육이 실패했다는 거죠. 이제와서 지금껏 안한 인성교육을 해보자는 건데, 이것을 효도, 성실, 정직 등 8가지 도덕 항목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평가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한다니까(결국 삭제되었지만) 대치동에 인성교육학원이 난립했어요. 그런데 인성교육이라는 게 교과서와 교안을 만들어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덕목을 실천하여 체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풍조에서 기독교학교 교사들이 어렵겠지만 신념을 굽히지 말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선교사들과 우리 선배들이 학교를 자진 폐교하면서도 불의에 항거한 역사와 전통을 물려받았어요.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이상을 꿈꾸는 기독교학교의 비전을 버리지 않고 견지하고 있었지요. 이제도 꿈을 잃지 말고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삶으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지요. 이제 말로 교육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신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 은퇴 이후에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곳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해요. 저를 지도하고 도와주신 스승과 선배들에게도 감사하고요. 특히 전 대 광고장이신 고(故) 이창로 장로님과 때마다 격려해 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웨슬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신 박사님을 비롯해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께서 기독교학교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 ■ 말씀 감사합니다. 🍷



동화의 숲에서

절대자를 만나다



미야타 미츠에 지음
양희경 옮김

그림 형제 동화, 안데르센 동화에서
미하엘 엔데의 《모모》까지 :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신앙적, 답변

철학과 신학의 몽타주

-만들어진 신의 기원에 관하여

이영진 지음



데카르트, 칸트, 헤겔, 라캉, 데리다...

그리스도의 길과 배치되는 철학자들의 이성 속에서
로고스의 본성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는가?

WORLDVIEW SPECTATL

공의회 의원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갑자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의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사이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 공의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드다가 출현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드다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사백 명가량 되는 사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벌인 운동도 흐지부지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던 후에는 인구 조사를 할 때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 역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에 관하여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충고에 설득되었습니다.

_사도행전 5장 33절~39절, 아가페 쉬운성경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창조와 진화

— 누가, 언제, 어떻게?¹)



1. 이 글은 손봉호 외, 『문서 신교사 웨슬리 웨스트워스』(IVP, 2015)에 수록된 필자의 글 “과학과 종교 그리고 창조와 진화”의 일부를 재구성해 작성한 것이다.

그동안 창조-진화 논쟁을 연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창조냐? 진화냐?”라는 질문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질문은 양자택일적인 이분법적 구도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이글의 제목이 “창조냐 진화냐”가 아닌 “창조와 진화”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필자는 ‘창조-진화 논쟁’ 대신 ‘기원 논쟁’이라 부르기를 제안한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기원문제와 관련해서는 창조와 진화로 특정할 수 있는 두 입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진화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양자가 혼합된 중간적인 형태의 입장이 있다. 짧은지구창조론, 오랜지구창조론, 지적설계론, 유신론적진화론, 범신론적진화론, 무신론적진화론 등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둘째, 창조냐 진화냐 이 두 질문은 층위가 다르다. 서로 다른 차원의 질문인 것이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답변이라면 어느 쪽이 옳은지 밝히는 것이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질문에 대한 다른 답변이라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하는 양자택일적 접근 자체가 문제가 된다. 기원에 대한 질문은 다층적이다. 인간을 포함한 현재의 우주를 존재하게 만든 창조의 주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이는 무신론과 기독교 유신론을 가르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인간을 포함한 우주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는 시기와 과정에 대한 질문도 있다. 이는 주체에 관한 질문과는 다른 차원의 질문이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입장은 다른 차원의 질문에 대한 다른 답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의 주체

기원 문제에서 성경 특별히 창세기가 관심을 갖는 것은 창조의 주체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우주와 인간을 존재 하게 한 궁극의 원인이자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우주와 인간을 초월한다. 창조의 주체는 창세기가 들려주는 내러티브의 핵심 메시지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을 넘어 창조의 ‘시기와 과정’에 대한 정보를 창세기에서 읽어내려 한다면 그 기록목적을 벗어나게 된다. 초월적 존재로서 창조주가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신의 창조행위는 인간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인간의 언어로 기술될 수도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언어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탱하기도 한다. 하지만 창조주가 어떻게 우주와 관계를 맺고 이를 지탱하는지



박희주 현재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호주 멜번대에서 과학사를 전공했고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주된 관심이 있다. 미국 진화론 논쟁사에 대한 연구로 한국과학사학회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역서로는 『생명과 우주에 대한 과학과 종교논쟁, 최근 50년』, 『창조와 진화에 대한 세 가지 견해』 등이 있다.

창조주와 우주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는 초월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인간 이성의 한계 내에서 자연현상을 탐구할 수 있을 뿐이다. 창세기는 과학 텍스트가 아니다. 창조의 주체와 구원에 관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증거가 아닌 믿음이다. 창조의 주체와 구원이라는 주제는 신앙의 영역에 속하며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다.

진화의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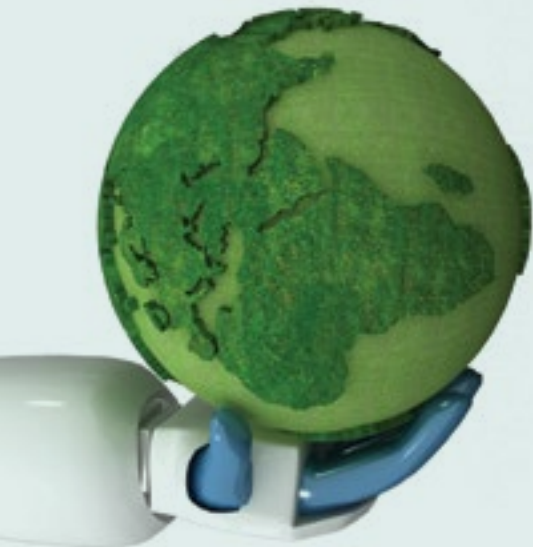
창조의 시기와 과정에 대한 물음이 창세기에 적절하지 않듯이 주체에 대한 물음은 진화론에 적절하지 않다. 진화를 가능하게 한 존재가 있는지 그 주체는 무엇인지 진화론에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답변이 돌아오겠는가? 진화의 주체는 생물학 이론으로서의 진화론이 답할 수 있는 성격의 질문이 아니다.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진화의 메커니즘에 관한 탐구이다. 진화는 과정이며 메커니즘이지 주체가 아니다. 예컨대 하나의 종은 진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것이지 '진화가' 생성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진화론은 현재의 종 다양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이론이며 과학자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과학이론으로서 진화론은 다른 어느 과학이론과 마찬가지로 잠정적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과학의 역사는 과학이론의 변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진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지금 이 시간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론의 디테일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는 중이다. 그래서 미래의 진화론이 현재의 큰 틀은 유지할지 모르지만 지금과는 사뭇 다른 내용을 가질 것이라 예측되며 어떤 내용을 가지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²⁾ 최근 진화론 연구자들은 시스템생물학, 후성유전학, 에보데보, 자기조직화이론 등을 바탕으로 1930년대의 진화중합설을 대체할 새로운 종합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이론적 잠정성은 물리학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묶는 양자중력 이론은 지금도 완성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물리이론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

우주의 기원

생명의 형성과정 외에도 기원문제에서 과학이 큰 관심을 가진 영역이 있다. 현재의 우주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현대의 우주론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며 과학적 근거를 지닌다. 오늘날 표준적인 답변은 우주가 대략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팽창중이라고 본다. 물론 이 답변도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잠정적이다. 우주의 나이에 대한 추정치는 20세기를 거치며 계속 변해왔다. 빅뱅 모델 역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재의 다양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수치이며 모델일 따름이다.

2 과학이론은 특정 자연현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탐구이다. 과학자는 현재의 이론이 제시하는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보완하며 나아가 새로운 메커니즘을 모색한다. 이것이 현대 과학 활동의 본질이다. 이런 면에서 만고불변의 소위 "과학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이론이 잠정적이라고 해서 과학이론의 가치가 부정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과학이론은 현 시점에서의 최선의 지식으로서 자연현상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응용하면 자연현상을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더름 아닌 기술이며 우리가 누리는 현대의 과학기술문명은 그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관심을 넘어 현 우주를 존재하게 한 궁극적 원인에 대한 질문을 과학에 던진다면 이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다. 현대과학은 관찰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현상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현 우주를 가능하게 한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신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과학이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입장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과학이 아닌 종교적, 철학적 문제로 접근해야한다. 만일 어떤 이가 과학자로서 과학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논한다면 이는 범주착오가 될 것이다. 리처드 도킨스가 과학의 이름으로 신의 부재를 주장한 「만들어진 신」이 대표적 경우다. 신의 존재를 개인적 신념으로 부정할 수는 있지만 신의 부재를 과학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신의 존재여부는 과학의 탐구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이다.³⁾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원 문제를 ‘창조냐 진화냐’ 라는 양자택일적 프레임으로 접근한다면 문제를 보는 시각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읽는 문자주의적 접근과 물질 만이 유일한 실재이며 과학만이 물리적 실재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적 유물론이 여기에 더해지면 기독교와 과학은 견잡을 수 없이 갈등의 관계로 치닫게 된다. 이는 본질의 왜곡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이다. 기독교가 반과학적일 필요는 없다. 과학도 반종교적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독교인은 과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에 깃든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의 부재는 과학의 결론이 아닌 유물론이 취하는 전제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적 우주뿐이며 이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는 없다는데서 유물론은 출발한다. 신의 부재에서 출발한 유물론이 신의 부재로 귀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과학의 출발점은 관찰가능한 자연현상이다. 신은 관찰가능한 자연현상이 아니며 시작부터 과학의 탐구대상을 벗어난다. 도킨스가 과학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신의 부재는 과학적 탐구의 결론이 아니라 자신의 유물론이 취한 전제일 따름이다.

기독교인에게 본질적인 것은 창조의 주체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구속주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다. 우주 형성의 시기와 과정에 대한 지식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지 않으며 이견을 관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독교사회에 보수와 진보에 걸쳐 다양한 색깔의 신앙이 공존하듯 기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시기와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관용할 필요가 있다. 창조의 시기 문제를 두고 젊은지구창조론과 오랜지구창조론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상황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서로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주체와 과정에 대한 질문을 혼동해 창조냐 진화냐 둘 중 하나를 강제하는 이분법적 프레임 역시 문제가 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은 ‘창조의 주체에 대한 신앙고백’이지 ‘우주와 생명의 형성과정에 대한 과학지식’ 예컨대 진화론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다. 과학지식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기원의 선결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제언은 기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 논쟁에 더없이 적실하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





창조론 연구의 다면성

한국창조과학회가 1981년 1월 31일에 창립총회를 했으니 한국에서 본격적인 창조론 운동이 시작된 지도 벌써 35년이 가까워온다. 하지만 창조론에 관한 한국 저자들의 진지한 연구물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동안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나 교회의 호응, 지도자들의 학문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국제 창조론 운동을 이끄는 저작들이 많이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이는 창조과학 운동으로 대변되는 지난 한 세대 동안의 국내 창조론 운동이 신학적 논의를 낮게 보고 반지성적인 근본주의 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창조론 연구의 세 차원

창조론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성경/신학적 연구, 둘째, 과학적 연구, 셋째, 과학사/과학철학적 연구이다. 그러면 왜 창조론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해야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창조론은 세 분야에 걸쳐 있는 대표적인 학제연구(interdisciplinary study)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다리가 세 개 있는 책상이 어느 한 다리 없이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과 같다. 세 분야에 걸쳐 있는 창조론 연구에서 어느 한 분야만 집중하고, 나머지 분야를 소홀히 하게 되면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창조론 연구가 기독교 진영 내에서도 많은 갈등과 논쟁이 되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창조론에 대한 다면적인, 혹은 학제적인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과학자나 공학자들이 창조론 운동의 전면에 섰기 때문이다. 반성의 여지가 없는 무생물, 혹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을 연구

하는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은 사람을 다루는 인문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에 비해 생각이 단순할 수밖에 없다. 다면적 고찰이 필요한 연구를 단순 사고를 가진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앞장 서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다.

한국창조과학회가 처음 창립될 때 정관에 정회원 자격으로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적어도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아직까지 그 조항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항이 초기에 창조과학자들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권위를 증시하는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립준비위원으로, 그리고 창조과학회 창립멤버로 참여한 필자도 그렇게 회원들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그 때는 창조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과학적 연구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양승훈 VIEW(벡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경북대 물리교육과, KAIST 물리학과를 졸업했으며(MS, PhD) 경북대 물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과학사(MA)를, 휘튼대학에서 신학(MA)을 공부했다. 지금까지 「창조와 격변」, 「다중격변창조론」, 「생명의 기원과 외계생명체」, 「창조와 진화」, 「프라이드를 탄 톤키호테」 등 35권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대폭발과 우주의 창조」, 「창조연대논쟁」의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창조론 오픈포럼의 공동 창립자이자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연 2회 출간되는 창조론 학술지 〈창조론 오픈포럼〉의 공동편집인이다.

하지만 필자는 후에 신학과 과학사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너무 좁았음을 알게 되었다. 창조론 운동에서 과학적 측면은 한 부분에 불과하고 성경/신학적 연구와 과학사/과학철학적 연구가 균형을 이루어져야 함을 알게 된 것이다. 창조론 연구를 향해하는 배에 비유한다면 과학적 측면은 배의 엔진의 출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성경/신학적 연구나 과학사/과학철학적 연구는 항해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엔진의 힘이 좋아도 항해사가 시원찮으면 항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한 것도 엔진 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원찮은 초보 항해사가 키를 잡았기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항해사가 시원찮다면 차라리 엔진의 출력이 작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한국 교회나 사회에서의 창조론 운동을 회고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운동, 어느 단체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지만, 한국 교회나 사회에서의 창조론 운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이제는 그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조론 운동으로 인해 일어난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 외부의 공격은 한국 기독교 지성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창조론 운동의 다면적 측면을 무시하고 어느 한 쪽으로, 특히 과학적 측면으로 치우쳤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한국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창조과학 운동이 처음 시작된 미국, 그 중에서도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안식교(재림교)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고, 안식교로부터 창조과학을 들여왔던 헨리 모리스 등 미국 남부의 근본주의자들도 그러했다. 하지만 안식교는 하나의 기독교 섹트(sect)로서 자기들만의 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자기들 전통과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과감하게 추방했기 때문에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큰 파열음이 들리



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개신교 진영에서는 창조과학으로 인해 미국 복음주의 진영이 근본주의 진영과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그 분열과 다툼의 핵심에는 성경/신학적, 과학사/과학철학적 함의가 큰 창조론 운동을 신학적 소양이 부족한 과학자, 공학자들의 손에 맡겨두었다는 뼈아픈 사실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창조론 연구가 삼차원적이어야 할까? 먼저 성경/신학적 측면부터 생각해 보자.

2. 성경/신학적 측면

말할 필요도 없이 창조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출발점을 이루고 있는 교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성경신학(해석학)은 창조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성경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성경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과학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는 순수하게 신학적인 논의의 영역이지만 동시의 창조론 연구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은 어떤가? 성경은 창조에 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조직신학은 창조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며, 사도신경도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면서 동시에 성경신학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창조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성경에 대한 바른, 혹은 건강한 시각과 이에 기초한 신학적 반성이 창조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창조론과 관련하여 발생한 많은 문제들은 신학적 반성이 부족한 사람들, 다시 말해 신학적 소양이 부족한 과학자와 공학자들에게 과도한 힘과 권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3. 과학사/과학철학적 측면

다음에는 과학사/과학철학적 측면을 생각해 보자. 흔히 역사라고 하면 인류의 역사만을 생각하겠지만 실은 어떤 학문든지 학문에는 해당 학문의 역사가 중요한 분야로 연구되고 있다. 경제학에는 경제사가, 정치학에는 정치사가, 음악에는 음악사가, 과학에는 과학사가 있다. 그러면 왜 모든 학문의 분야마다 해당 분야의 역사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기의 학문의 발전 내지

변천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학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걸어온 학문의 발자취를 주의해서 살펴보면서 올바른 자취, 그릇된 자취를 반성할 때 우리는 현재의 학문적 정체성과 미래의 학문적 지향점을 바르게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창조론 운동의 배경이나 역사로부터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초대교회 때부터 과학과 신앙, 좀 더 구체적으로 헬라문화의 자연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는 많은 상호작용을 했다. 중세에도 과학과 신학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해 왔다. 초대교회에서 히브리파 교부들과 헬라파 교부들의 논쟁, 13세기 파리대학에서의 금지명제 사건, 17세기 갈릴레오 재판이나 19세기 진화론 등의 등장으로 과학과 기독교는 때로는 동지인 듯, 때로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듯이 지내왔다. 이런 과학과 기독교의 역사적 상호작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론 논쟁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가 분명해진다.

4. 과학적 측면

마지막으로 말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분야는 과학적 측면이다. 앞에서 창조 연구에서 과학적 측면을 과도하게 중시할 때 닥치게 될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과학적 측면을 무시하지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든 과학자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성직자들의 가운데보다 과학자들의 가운데가 더 신뢰할만하고 권위 있게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학 연구는 성경 연구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잠정적이지만 과학은 태초의 지구 상태나 우주의 형성 과정, 지구나 우주의 연대, 오늘날 지구의 운행 등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앞에서 언급한 성경/신학적 연구나 과학사/과학철학적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

지만 우리는 과학 연구에 있어서 과학이 자신의 영역이 아닌 곳까지 넘보는 것을 잘 감시해야 한다. 창조론 연구에서는 어디까지나 앞의 두 연구가 기초가 되어야 하고, 과학적 연구는 그것들의 기초 위에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과학적 연구가 든든한 성경/신학적, 과학사/과학철학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래 우리나라 창조론 운동에서 목도하는 분열과 다툼, 반지성적 태도는 바로 그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세 가지 계시

지금까지 얘기한 창조론 연구의 세 측면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세 가지 계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특별계시의 영역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에 비해 특별계시의 우월성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바이다. 18세기 영국에서 자연신학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우선순위를 바꿀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한 이를 체계화한 신학적 고찰은 창조론 연구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연계시의 영역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 우리의 이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자연계시의 영역을 연구하는 것이 곧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계시는 어디까지나 특별계시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거나 특별계시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만일 자연계시가 특별계시를 무시하거나 압도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시적인 피조세계는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로부터 창조신앙을 확립하는 데는 특별계시의 인도가 필수적이다.



셋째, 역사계시의 영역이다. 성경과 자연에 이어 역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 삼의 계시의 통로이다.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고, 대부분의 성경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0년의 교회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연구하는 것은 창조의 또 다른 차원의 창조론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초대교회로부터 중세, 근세 교회를 거치면서 교회가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창조론 연구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말씀(성경/신학)과 자연(과학)과 역사(과학사/과학철학)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균형 있게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세 영역에 대한 연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창조론 지도자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창조론 운동이 도리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 세 분야를 모두 연구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여러 전공의 학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학술적 논의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

A hand is shown from the bottom, pointing its index finger upwards towards a glowing blue planet in space. The planet is surrounded by a bright blue aura and is set against a dark blue background filled with numerous small white stars. The overall scene is set in a cosmic, starry space environment.

교회가 창조과학을 재고해야 하는 이유



우중학 서울대 물리천문학과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캘리포니아대(UCSB)에서 연구원으로, 나사(NASA) 허블펠로우십을 받아 UCLA에서 연구했다. 저서로는 『블랙홀 교향곡』(동녘사이언스),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가 있으며, 〈월드뷰〉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흔히 우리는 진화론 때문에 청년들이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들은 과학이 무신론의 증거라는 진화주의 입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한다. 그 공격이 도화선이 되면, 신앙의 지적 토대가 약한 기독교인들은 내상을 입고 신앙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진화론은 전체 그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오히려 창조과학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교회에서 배우는 창조과학과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사이의 모순 때문에 심하게 갈등하다가 신앙을 잃을 뻔 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다행히 훌륭한 스승이나 균형잡힌 책을 통해서 창조주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과학을 수용할 수 있음을 깨닫고는 오히려 더 풍성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결말을 들으면 한시름 놓인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공룡이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들으며 자라다가, 과학을 배우더니 교회가 거짓을 가르쳤다는데 실망하여 기독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젊은지구론을 믿어야만 기독교인이라는 오해가 퍼져있다보니, 마치 천문학이나 지질학 그리고 생물학의 내용을 수용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분위기다. 젊은지구론이나 창조과학의 논리가 조잡한 수준임을 목격한 과학전공자들 그리고 과학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기독교를 떠난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나에게 과학의 교만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하는 사람들이다. 창조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밝혀도, 그들이 보기에는 창조과학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예수를 믿을 리는 없나보다. 기독교인이라는 가면을 쓴 진화론자에 불과하다는 낙인을 찍고 예수믿고 복받으라며 던지는 언어의 폭력 앞에 쓸쓸한 미소가 지어질 뿐이다.

나만의 경험이라면 순교자 코스프레라도 하며 참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공격을 받는 많은 과학자들과 지성인들이 기독교에 회의를 느끼고 신앙을 버리는 길을 택하는 것을 안타깝게 목격하는 나로서는 그저 인내해야 할 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침묵한다면 과학자로서 받은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셈이다.

창조과학은 진화론의 위협에서 기독교를 지키려는 선한 의도로 진화론을 공격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과학을 부정하는 창조과학은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창조과학 난민을 양산했고 신앙을 잃게 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더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한국교회는 창조과학을 심각히 재고해야 한다.

과학이 무신론의 증거라는 공격에 맞서는 바른 전략은 오히려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낸다고 반론하는 것이다. 과학에는 창조주의 증거가 없다고 무신론자들이 주장한다면, 기독교과학자들은 과학이 오히려 창조주의 지혜를 드러낸다고 알려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창조과학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략을 취했다. 그것은 과학이 틀렸음을 보여서 무신론을 무력화 시키고 유신론이 옳음을 입증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 불운한 전략은 첫째, 창조과학으로 대변되는 근본주의 기독교와 과학계 사이의 충돌을 초래했다. 창조과학회는 무신론자들과 맞서려 했지만, 오히려 기독교과학자

를 포함한 과학계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창조과학자들의 역사를 다룬 넘버스의 책, '창조론자들'을 보면 과학 대신 창조과학을 가르치려했던 법정 투쟁에서 많은 기독교과학자들이 오히려 창조과학의 반대편에 섰던 일화들이 나온다. 기독교과학자들이 창조과학을 반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인 창조과학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령,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이 엉터리라거나 그랜드 캐년이 수천 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기독교인이건 무신론자건 간에 전문분야 과학자가 수용할 수 없는 허황된 견해다. 다양한 학문에 걸쳐 지구 연대가 오래되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젊은지구론이 진정한 과학인 양 포장하는 창조과학의 주장들에 대해 과학자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짓는다. 창조과학은 과학에 대한 오해와 반감을 심어 대중을 오도하는 골칫거리로 각인된 지 오래다.

둘째, 과학을 부정함으로써 무신론의 증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은 꽤나 시대착오적이었다. 헨리 모리스를 중심으로 1960년대에 과학적 창조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창조과학 운동의 배경에는 근본주의가 있고 더 밀접하게는 안식교의 성경해석이 있다. 창조과학의 주류 견해인 젊은지구론은 아마추어에 불과했던 안식교인 맥그리드 프라이스가 만든 홍수지질학을 토대로 세워졌다. 물론 지질학계는 홍수지질학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사실, 다윈의 진화론이 출판되기 전에 이미 과학계에는 지구 연대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견해들이 자리잡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 신학자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지질학의 결론을 반기독교적인 견해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셋째, 과학을 대적하는 창조과학의 전략은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교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에 계시하신 창조의 역사를 무시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는 태도는 성경신학적 오류다. 성경의 저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내용까지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는 태도는 위험하다. 성경을 과학교과서처럼 읽어서 구성한 창조과학의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창조세계의 특성을 왜곡한다. 하나님께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음을 굳이 외면하고, 하나님을 미술사의 모습으로 제한하는 심각한 왜곡을 낳는다. 자연현상의 인과관계가 과학으로 설명되면 마치 신의 창조나 신의 섭리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창조과학식의 이해는 신을 기적이라는 세계에 가두어 버리는 전근대적 입장으로 전락한다. 자연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연에 담긴 일 반계시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창조과학자들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과학의 겸손? 신학의 겸손은?

과학자로서 젊은지구론이나 창조과학을 비판하면, 과학은 불완전하고 성경은 온전하니 과학을 성경 위에 두면 안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렇다. 기독교학자라면 누구나 과학을 성경 위에 두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의 교만과 더불어 신학의 교만도 주목해야 한다. 과학이 겸손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나는 성경을 완벽히 이해하는데 너의 과학은 불완전하니 과학을 성경 위에 두지 말라고 말하는 듯하다. 글썽하다. 나의 성경해석을 성경자체와 동일시 할 수 있을까? 나와 우리 교단의 성경해석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성경해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왜 겸손하게 돌아보지 않는가? 과학이 자연이라는 실재에 대한 영원한 근사에 불과하듯, 신학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영원한 근사에 불과하다. 그러니 과학의 겸손과 더불어 신학의 겸손도 갖추어야 한다. 창세기에 지구 연대가 1만년이라고 명백히 써있지도 않은데 지구나이를 성경에서 읽어내는 것이 적합한지 겸손히 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과학은 겸손할 수 밖에 없다.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과학자가 무엇을 주장하겠는가? 물론 과학주의 무신론자들처럼 과학으로 감히 신의 존재를 논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과학이 겸손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미 전문분야 과학자들이 오래전에 합의하고 결론내린 내용까지 공격하는 것은 학문적인 태도가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설명하는 사람에게 과학은 겸손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격이 맞지 않는다. 창조과학회가 비판받는 이유는 바로 지구의 오래된 연대처럼 과학계에서 이미 합의되고 결론내린 내용까지 마치 불확실한 것처럼 오도하기 때문이다.

과학의 겸손을 주장하는 창조과학회가 들어야 할 말은 비전문가의 겸손이다. 현대과학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전문가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적 내용을 판단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창조과학 강의를 검토해 보면 전문 과학자도 아닌 공학자나 의사가 과학자라는 이름으로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을 예시하면서 과학이 아니고 가설에 불과하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펼친다. 과학의 겸손을 말하기 전에 비전문가들의 겸손을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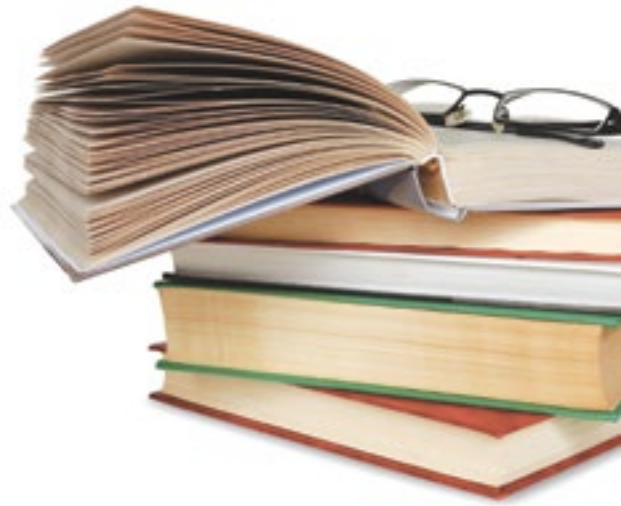
과학기사나 인터뷰 혹은 잡지의 내용을 따라가 입맛에 맞게 편집해서 마치 과학에 심각한 결함이라도 있는 것처럼 대중을 오도하는 창조과학의 동영상이나 글이 교회에 퍼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전문분야 과학자의 입장에서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피상적인 이해 때문에 오해했거나 침소봉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말로 과학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연구논문으로 밝혀야지 왜 과학을 잘 모르는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프로파간다를 펼치는가? 그 이유는 자명하다. 과학자들을 상대할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의 오류를 밝히려는 골목길에서 시비걸지 말고 당당하게 링으로 올라와서 붙어야 하지 않을까?



교회가 젊은지구론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꼽아 보자. 첫째, 젊은지구론이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는 오해 때문이다. 글썫다.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토대로 지동설이 틀렸고 천동설이 맞다고 주장했었지만 결국 천동설이 무너졌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무너졌는가? 젊은지구론을 폐기한다고 해서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담은 복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둘째, 교회는 창조과학의 주장에만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을 겪기 때문이다. 과학을 판단할 전문성의 부재와 과학계와 교류하지 않는 폐쇄성은 창조과학이 진화론에 물들지 않은 진정한 과학이라는 허상에 폭 빠지게 한다. 이 불균형을 깨려면 전문분야 과학자의 견해를 듣고 배워야 한다. 하지만 세번째 문제는 창조과학회가 진화론자라고 낙인찍은 과학자들의 견해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창조과학이 아니면 진화론이라고 규정하는 근본주의적 폐쇄성은 오래 전에 폐기되었어야 할 젊은지구론이 여전히 창조과학의 주류 의견으로 그리고 한국교회의 대다수 의견으로 남아 있게 만든 원인이다. 넷째, 그동안 창조과학을 가르쳐왔던 입장을 쉽사리 바꾸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철저히 믿고 가르쳤던 젊은지구론을 폐기하는데 따르는 부담감과 철저히 부정했던 지구의 오랜 연대를 수용하는데 따르는 심리적 거부감은 당연하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쉽지가 않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이 최선이다.

창조과학을 심각히 재고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어둡다. 신앙에 걸림돌이 될 내용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은 멈춰야 한다. 지질학 전공자도 아니면서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이 틀렸다고 하고, 천문학자도 아니면서 적색편이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생물학자도 아니면서 종의 분화는 관측된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비전문가 창조과학 강사들이 교회에서 젊은지구론을 가르치며 과학을 깡그리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강의를 듣는 과학전공자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러다가 신앙을 버리고 불가지론자가 되거나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를 보고 접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과학 때문에 갈등하다가 교회를 떠나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젊은지구론을 폐기해야 한다. 교회는 창세기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이성과 과학의 갈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은 과학보다 위대하다. 정보의 불균형을 깨야 한다. 과학자들을 진화론자라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듣고 배워야 한다. 심리적 부담감을 딛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한다. 젊은지구론이나 창조과학을 털고 갈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

*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함께 연재합니다.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2015.10.10.일자)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과 대면 후에...

창조과학과 마주하다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과의 첫 대면은 내가 미네소타대학에서 천체물리학 박사과정 중(~1981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980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당시 젊은 날의 신앙 열정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대단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자되는 여러 이야기들, 신앙의 선배들, 특히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해 오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과의 대화 내용을 과학 연구자임에도 이상하리만치 아무 비판이나 이성적인 사고 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아니 젊었기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믿고 행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했으며, 또한 그분들도 그런 나를 인정해 주셨다. 그러던 것이 지구의 나이가 6,000년 정도라는 이야기를 어떤 성도님에게 들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아니,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그렇다고? 나에게서는 이상하게만 들리던 이 질문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때까지의 햇수를 대략 계산해 보았다. 당시는 1980년대 초로 1980을 더했더니 정말 대략 6,000이 나왔다. 놀라운 일이었다. 성경을 근거로 계산하였기에 열정적인 성도들은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들

이 때로는 너무 억지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또 그런 것들을 모두 믿고 수용하기에는 오히려 성경과 맞지 않는 것들도 있었고, 그중 대부분은 한국 교회에서 전통처럼 내려오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6,000년 정도라는 이야기도 조금 있으면 그냥 잠잠해질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1986년경 ○○○ 교회를 유학 시절 친구의 도움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그 교회에서 일군의 대학교수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창조과학을 전도하시는 분들이었다. 대개 공학을 포함한 응용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었고, 생물을 전공하신 교수님도 계셨다. 불행히도 그날 우연찮게 지구의 나이를 놓고 그분들과 토론을 벌이게 되었는데, 급기야 우주론을 설명하는 빅뱅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내가 우주론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빅뱅이론(인플레이션을 포함하여)이 얼마나 우주를 잘 설명하는 체계인가를 배웠고 모든 천문학자들이 이 이론을 인정하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기에 이렇게 타 전공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이론을 무시하는가? 정말 내가 이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어도 되는가? 더 이상의 토론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그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그 후 여러 교회를 전전하다가 1990년대 초중반에 바로 그 ○○○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각종 프로그램과 성경 강좌가 많은 곳이었다. 새신자 프로그램 2강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슬쩍 창조과학을 끼워 넣은 것이 좀 걸렸다. 이를 강의한 교수가 K대학교 S 교수였는데, 이분의 전공은 꽃과 관련된 것이라 들었다. 그분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빅뱅이론도, 진화이론도 모두 엉터리라고 강의하였다. 이 교회 성도가 된 후, 이런 강의를 들은 성도들에게 창조과학이 옳지 않다고 알려주면 된다고 소박하게 생각하면서 꼭 참고 견뎠다. 나는 천체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이자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에 소속된 교수로서 권위가 있으며, 이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 주면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무시할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나의 외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희망이 보였다. 1986년경 나에게 빅뱅이론이 틀렸다고 말씀하셨던 교수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며 창조과학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다. 알고보니 그분은 창조과학 그룹에서 축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성경공부 시간에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말할 때면,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몰아붙이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 문제는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이 교회학교에서 배우는 창조과학과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됨을 알게 되었다. 교회학교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역설해도 돌아오는 것은 대화 단절이었다. 나는 점차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님들로부터 목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더는 그 교회를 다니기 어려워졌다. 내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학부생들에게 빅뱅이론을 포함한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도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없

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께서 '창조과학이 바른 과학'이라고 하셨기에 자신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더는 이 교회를 다닐 수 없었다.

나는 중·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육하는 지구과학교육과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기에 중등과학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과학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면, 일군의 창조과학 관련자들이 몰려와서 창조과학을 과학 교육과정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창조과학이 왜 과학이 아닌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지난 수십 년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고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해 왔다. 이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하여 공청회에서 다루어야 할 다른 중요한 사항들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빼앗았다.



그림 1. 오리온 자리

밤하늘을 보면 제일 잘 보이는 천체가 달이다. 보통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어둑어둑해질 때도 밝은 천체들이 몇 개 보인다. 이들 대부분은 우리 주변의 행성들이다. 깜깜해지면 초등학교 때 배운 북두칠성, W 형태로 보이는 카시오페아 자리 등의 기하적인 모양이 보인다. 자세한 관찰자라면 매년 그 형태가 일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가을이 되면 그림 1과 같은 오리온 자



최승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에서(Ph.D.) 수학하였다. 저서 및 역서로는 『천문학의 이해』, 『수치천체물리학』, 『천문학』, 『은하계』, 『은하와 우주』, 『천문학 및 천체물리서론』 외 다수가 있다.

리가 저녁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이 항상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기에 사람들은 보통 오리온 자리의 별들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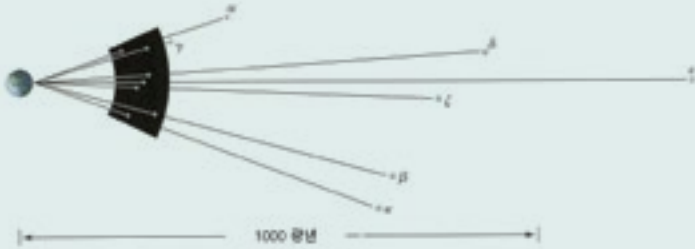


그림2. 오리온 자리 별들의 실제 공간 분포

그렇지만 그림 2와 같이 오리온 자리를 이루는 별들은 사실 공간상에 널리 퍼져 있어 물리적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다. 지구에 있는 관측자에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러한 별들 사이의 공간을 느껴 보기 위해 태양과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루스까지의 공간을 생각해 보자. 태양의 크기를 100원짜리 동전만 하다고 보면, 프록시마 센타우루스 별도 태양과 비슷하므로 100원짜리 동전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 두 별이 4광년 정도 떨어져 있기에 비례관계를 따지면, 마치 100원짜리 동전 두 개가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과 비슷하다. 쉽게 이야기해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서울에 있다면, 나머지 100원은 제주도 에 위치해 있는 것과 같다. 태양에서 가까운 별이 이러한 공간 느낌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림 2와 같은 공간에 위치한 별들은 물리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물론 물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별들도 많다. 그러나 관측되는 것들이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물리적으로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계산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지구의 나이를 이렇게 성경과 관련지어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창조과학을 믿는 분들은 하루를 고집한다. 이 하루를 오늘날의 하루로 보지 않으셨다는 어떤 교수님이 창조과학회에서 축출되

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창조과학을 믿는 어떤 교수님께 ‘1억 광년 떨어져 있는 천체에서 오는 빛을 지금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 관측하는데, 지구의 나이가 6,000년 정도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교수님 답변이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그 빛을 그 천체와 지구 사이에 지구에서 6,000광년 떨어진 위치에 창조하셨다고 하였다. 젊은 지구론자들은 6,000년 전에 우리가 보는 이 상태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주장한다. 이를 믿지 않으면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날 천문학자나 지구과학자들은 그림 3과 같이 우주의 나이가 137~138억 년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이러한 우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는지 연구하여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45억 년 전쯤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가 형성되었다.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은 아직도 과학자들 사이에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체들이 진화했고 인류가 이 지구에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많은 답들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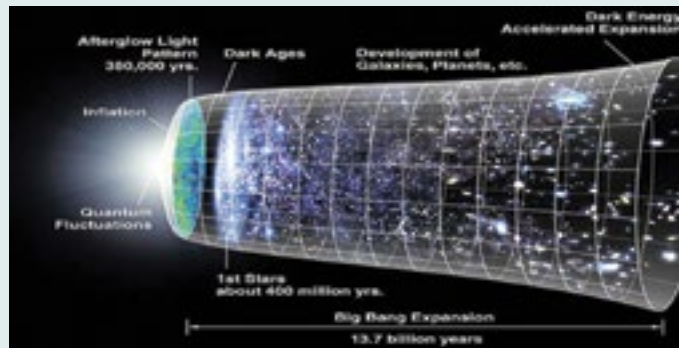


그림3. 빅뱅우주

물론 이러한 답은 과학자들의 과학회의 즉 과학 학자 사회 공동체가 합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해 낸 지식체제이다. 이러한 지식은 과학의 역사를 통해 수정되고 더욱 정교해졌다. 젊은 지구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들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체계는 수정될 수 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들을 자신의 주장에 연결시킨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오리온 자리 별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눈에는 그림 2와 같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 마치 개그맨들이 이상한 것들을 연결시켜 웃음을 자아내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싶으면 해 보란다. 어찌란 말인가? 우리가 조목조목 따지고 비판한다면 들을 것인가? 전문 과학자들도 깡그리 무시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라고 들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들이 있다. 지난 15년 동안 나는 과학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연구해 왔다. 과학자로서 학생들의 과학 활동은 과학학자들의 활동과 맥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과학교육에서는 탐구활동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마치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같이 과학 선생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다. 사실 과학 활동이 아니다. 과학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이 학습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지식조차도 암기하고 이해하여 과학 문제를 잘 풀면 과학을 잘한다고, 과학에 재능이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활동과 연구 결과를 과학자 사회 공동체에 발표하여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서 과학적 지식들이 축적되어 간다. 더구나 과학 활동은 오랜 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 과학자들이 과학자 사회 공동체에서 과학 지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학생들이 과학 지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를 과학 학습에서의 사회적 구성주의라 부른다. 과학자들은 관측되고, 실험된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델을 사용한다. 어찌 보면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 중 하나가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modeling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도 실험이나 관측에서 얻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그 자연 현상을 이해하게 된다. 이때 학생들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이 도입되

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사회적 구성주의 및 과학적 모델링 학습 과정이라 부른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작금의 학교 과학교육에서 실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과학이 학습되어야 학생들이 과학이 어떤 것인지 체득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훈련한 학생들은 창조 과학을 과학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신학생들에게 자연과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학생들은 문과생들이 많다. 이들은 중·고등학교에서 과학을 배웠어도 과학에 별로 관심이 없다. 수학은 말할 것도 없다. 수학과 과학을 모르더라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과학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그것을 과학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과학 및 과학 활동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학생뿐 아니라 목사님을 배출하는 신학대학원의 M.Div 과정에서도 과학 및 과학 활동을 가르쳐야 한다. 과학사나 과학철학만으로는 부족하다. 과학 활동을 제대로 경험해야 창조과학이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세 번째는 많은 과학자들이 SNS나 교회 강연을 통해 창조과학 대신 '과학(진화)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통 '진화적 창조' 혹은 '유신론적 진화', '진화적 유신론' 등을 주장하시는데, 디테일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과학에서 이루어 낸 성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같이 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세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창조과학과 같은 무지한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지만 자연의 신비함과 심미함을 통해서도 그분을 느낄 수 있다. 느낌이라는 것이 오차가 큰 감성적인 면이기는 하지만, 나는 시그널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싶다. 과학을 공부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듯 다른 학문을 공부한 분들도 그 학문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끼면서 이 글을 마친다. ☺

창조과학과
복음 변증,
그리고 교회 교육

창조과학은 흔히 “진화론에 반대하는 기독교 과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이 요구된다. 1) 창조과학이 단지 진화론에만 반대되는가? 2) 창조과학이 과연 기독교 과학인가? 3) 창조과학이 정상과학인가?

먼저 창조과학이 진화론에만 반대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창조과학이 진화론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 진화한다는 것은 생물학의 상식이다. 따라서 창조과학은 진화론뿐 아니라 생물학 전체와도 상당 부분 대립한다. 한편 창조과학은 지구의 나이를 1만 년 이내로 짧게 보고 있는데, 이는 지질학적 연대와의 맞지 않는다. 창조과학은 그랜드캐년이 약 5천 년 전, 1년가량 지속된 노아 홍수 때에 급격히 만들어졌다고 본다. 반면, 지질학은 약 18억 4천만 년 전부터 서서히 쌓여온 다양한 지층이 융기된 후, 약 5~6백만 년 전부터 침식되어 형성된 것으로 본다. 또한 물리학은 우주의 탄생을 약 138억 년 전에 발생한 빅뱅이론으로 설명한다. 화학 시간에 배운 원소 역시 빅뱅의 산물이다. 이는 우주가 약 1만 년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창조과학과도 대치된다. 결국 창조과학은 기본적으로 현대 과학 전반과 대립관계에 있는 셈이다.

창조과학은 단지 과학과만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이미 70만 년 전에 한반도에서 구석기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세계사에서는 300만 년 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50만 년 전의 호모 에렉투스, 20만 년 전의 네안데르탈인을 언급한다. 이 또한 인류가 약 6천 년 전 아담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창조과학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이처럼



창조과학은 역사학은 물론 인류학, 고고학과도 일정 부분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창조과학이 이렇듯 현대 주류과학은 물론 역사학, 인류학과 같은 인문학과도 대치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다. 하나님이 약 1만 년 전, 단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창세기 기사를 문자적,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조과학 입장에서는 현대 과학이나 역사학 등에서 언급하는 1만 년 전 이전의 사건이 모두 허구가 된다.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다는 주장도 거짓이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연중에 창조과학의 영향을 받은 크리스천 대부분이 빠르면 유소년기, 즉 공룡에 대한 관심이 생길 때부터 늦어도 과학과 역사를 배우는 시점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 교회에서 배운 내용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크리스천 교사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쥬라기 공룡’은 다 거짓말이라고 가르쳐야 할까? 진화도, 빅뱅,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한반도 구석기 유적도 다 학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해야 할까? 그런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기독교



이택환 그소망교회 담임목사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였고, 2002년부터 11년간 한국능가회(CMF) 학사/학원사역부 간사를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비과학계위원 및 운영위원, 한국 톰 라이트 북클럽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답을 쓰지 말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단 점수를 따기 위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쓰라고 해야 할까? 단지 진화론에 국한된 문제라면 통제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혼란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과학 전반과 국사, 세계사는 물론 인문학 및 일반 상식에까지 이르기에는, 사실상 손을 쓸 수가 없다. 차라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다 믿지 말아라!” 외치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신학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창조과학은 곧 기독교 과학”이라고 알고 있기에, 당연히 신학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일부 근본주의 신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학에서는 창조과학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천 역사가 마크 놀은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에서 일종의 ‘지적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주의 신학에서 창조과학이 출현했다고 지적한다. 창세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은 성서신학, 그중에서도 구약성서학이다. 하지만 오늘날 창조과학자들이 신봉하는 창세기 1장의 문자적 해석을 지지하는 구약성서신학자들은 거의 없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신학교 가운데 하나인 총신대 구약학과 김희석 교수는 “성경과 과학”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성경은 과학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과학적 언어로 설명하려 하지 말라. 짧은 지구론, 오래된 지구론 등등은 과학의 관점에서 토론해야 할 문제이며, 성경은 그러한 과학적 이론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될 만한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언어로 증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창조-타락-구속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렌즈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한다. 과학적 토론은 기독교 과학자들에게 맡기자.” (요약)

창조과학자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한다 해도 성서신학자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전문적인 성서신학자들은 창조과학자들과 달리 창세기 본문의 과학적 해석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우주 만물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명, 안식의 중요성 등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에 집중한다. 따라서 우주 만물의 생성 순서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때, 창세기 1장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구약신학자는 없다. 우리의 상식과 달리 지구가 태양보다, 심지어 식물이 태양보다 먼저 출현한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창세기 1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창세기의 연대 계산을 근거로 우주의 역사가 1만 년 이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세기가 말씀하는 핵심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성경 해석 방법 중 하나는 성경을 장르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다. 장르가 무시될 때 성경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일어난다. 축구에 야구의 룰을 적용하거나, 야구에 농구의 룰을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창세기의 장르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학, 그분에 대한 신앙고백과 찬양, 선포, 시, 노래 등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창세기가 역사 다큐멘터리나, 과학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자연과학개론서가 아님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창조과학자들은 창세기 1장을 역사적 다큐멘터리나 자연과학개론서처럼 이해한다. 창세기의 문자 하나하나를 역사적, 과학적 사실로 규정한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경



왜곡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창조과학을 기독교 과학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제 창조과학이 과연 정상적인 과학인가를 다룰 차례다. 과학자는 전문가다. 그런데 스스로 창조과학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정작 해당 과학을 전공한 전문가는 드물다.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과학자가 거의 전무하다. 대중 앞에서 주류 과학을 비판하며 창조과학을 전파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공학자 아니면 의사다. 몇

년 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창조과학을 강의하며, 단시간에 진화론을 비롯한 천체물리학, 지질학 등 현대 과학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진화론은 소설이고, 연대측정은 엉터리이며, 우주의 공간거리 측정도 완전 허구라는 식이었다. 질문 시간에 자연과학 전문가도 아닌 강사가 현대 과학을 그렇게 폄하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지 물었다. 강사는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레퍼런스가 있다며 양심적으

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강사는 같은 내과전문가라도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내분비내과 영역에 대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것이 의사들이 생각하는 전문의들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상식적인 문제다. 자신의 세부 전공이 아닌 학문 분야에 축적된 반대한 지식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의사는 물론 학자들의 상식이다. 하지

만 창조과학자들에게 그런 상식이 없다. 만약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분야에 대해 논문 한 편 쓴 적도 없이, 지질학, 진화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등 온갖 분야를 마음대로 폄하할 수 있다면, 일개 약사가 전문의의 처방을 비웃고 스스로 새로운 처방을 내린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창조과학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다. 사실 창조과학은 말이 과학이지 과학적인 방법론이 없다. 대중 강연에는 능하나 학술 논문에는 졸하다. 주류 과학을 비판하는 근거도 대부분 성경 말씀에서 찾는다. 그래서 정상과학이 아닌 유사과학으로 분류된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과학은 과학보다 차라리 신학, 그것도 '재앙적' 근본주의/문자주의 신학의 아류에 가깝다.

이런 창조과학이 복음을 변증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가득한 과학의 보고(寶庫)를 하나님 없는 세상에 내어주는 창조과학에는 그리스도 안에 만유를 통합하는 큰 기독교 세계관이 없다. 당장은 현란한 강의로 몇 명의 신자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창조과학에 물든 교회가 정상과학을 외면할수록 세상이 더욱 교회를 외면할 것이다. 이원론에 빠진 크리스천 자녀들이 학교에서는 세상 과학을, 교회에서는 창조과학을 따르다가 정신 건강을 위해 무수히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런 창조과학은 하나님을 이 세상과 무관한 초월의 영역으로 몰아내는 데 일조할 뿐이다. 전도의 길이 막힌다. 목사인 필자가 과학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는 있다. 간단하다. 교회가 성경에 대한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에서 벗어나면 된다. 목사가 신학교 성서신학 시간에 배운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면 된다. 한마디로 "성경을 성경되게 하라!"가 답이다. ☺



젊은지구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자신들의 성경 이해를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복음주의적 성경해석학의 교과서들 첫 장이라도 읽어본다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순진무구한 말인지 알 수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첫째,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번역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 둘째, 성경이 영원한 타당성을 가진 하나님 말씀이면서도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사람의 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for) 말씀이지만, 일차적으로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 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약 교회에(to) 주어진 말씀이다. 만일 한국어를 사용하는 21세기 한국인에게(to) 직접 주어진 말씀이라면, 고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아닌 한국어로 성경이 쓰여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이 우리를 위한(for) 말씀이지만 우리에게(to) 직접 주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고 가장 참된 의미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앞뒤 본문과의 관계를 살피고, 본문이 어떤 종류의 글인지를 연구하고, 다양한 수사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모든 복음주의 성경해석은 이런 논의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말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신앙이 좋은 태도인 것 같지만 그 말은 사실 성경을 내가 믿고 싶은대로 믿는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더 존중하는 것이다. 물론 신실하고 면밀히 해석해야 한다. 요컨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좋은 해석인가, 나쁜 해석인가만 문제일 뿐이다. 나쁜 해석에 대한 대안은 무해석이 아니라 적절한 해석이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어떤 본문들은 해석이 전혀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는 해석이 필요없어 보이는 구체적인 본문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젊은지구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자들의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순진무구한 설명인지를 알아보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으로 충분히 보이는 십계명의 소위 도덕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 해석하지 않고는 적절히 이해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

창조과학의 성경해석을 말하다



하나씩 살펴보자. 정확한 분석은 없지만, 지금까지 필자의 경험으로는 자신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형제에 찬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성경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형제를 찬성하다니! 이 지적을 받으면 아마도 사형제는 나라의 권세를 통해 집행하는 것이니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사형제는 하나님이 국가에 준 권세에 관한 것이니 “살인하지 말라”는 국가의 범으로서의 사형제와 관계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석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어떤가.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한글로 읽어서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남성 단수 동사가 사용되었다. 즉, 여자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다. 그러나 이 계명이 현대 여성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석하기 때문이다. 제7계명이 여성에게도 해당된다고 설명한다면, 그 설명이 남성형 동사가 모든 성을 지칭한다는 문법적인 해석에 토대하든, 한 가정의 대표에게 한 명령은 모든 가족에게 적용되었던 것이라는 사회화적인 해석에 토대하든, 간음하더라는 동사가 여성형으로 쓰인 다른 본문들과 함께 살피는 정경적인 해석에 토대하든, 그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 해석한 것이다.

사실 제7계명의 경우 구약 성경의 “간음”의 의미가 현대의 “간음”의 의미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도 논의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다음 계명에서 더 도드라진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경우, “도둑질”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가 사실 생각만큼 명확하지 않다. 살인과 간음의 경우, 다른 율법들은 그 처벌로 사형까지 말하는 반면, 도둑질은 그렇지 않다. 구약 전체

적으로 사람들에게 대한 범죄가 재산에 대한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어진다. 그래서 도둑질이 살인과 간음과 같은 무게로 다루어지는 듯한 십계명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때, 흔히 “도둑질하다”라고 번역되는 동사(“가나브”)가 출애굽기 21장 16절이나 신명기 24장 7절에서는 목축어와 더불어 쓰여 좀 더 구체적으로 유괴 또는 인신매매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해당 구절들에 의하면 그런 범죄는 사형에 해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8계명이 절도에 대한 계명인지, 유괴와 인신매매에 대한 계명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바로 해석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지고지순의 신앙 고백이 아님을 보았다. 해석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창조과학자들의 성경 읽기는 지고지순한 것이 아니고 소신무구한 것이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단순무지한 것이다. 누구는 해석하고 누구는 해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젊은지구론의 성경 읽기도 해석이다. 모두가 해석한다. 더 적절한 해석이 무엇인지 따지는 것이 필요하지, 한 쪽의 해석을 비신앙적인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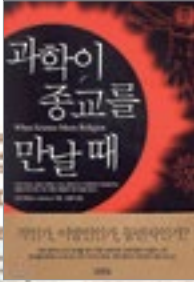
지면의 한계로 더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지만 젊은지구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의 성경해석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는 허상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역설을 보여주며, 본문의 장르를 분별하지 않아 근거 없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해석이며, 수사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평면적인 해석, 그리고 “과학적”이라는 미명 아래 본문의 풍성한 신학적 메시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빈곤한 해석이다. ☺



전성민 전성민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성서언어(M.C.S.)와 구약학(TH.M)을 공부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구약 내러티브의 윤리적 읽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D.Phil.)를 받았으며, 학위 논문이 “ETHICS AND BIBLICAL NARRATIVE”라는 제목으로 한국 신학자 최초로 옥스퍼드 신학 및 종교학 단행본 총서로 출판되었다. 기독교 연구원 느헤미야의 창립 연구위원이자 현재 초빙연구위원이며,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로 있다.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_엡 3:17-19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저자 이언 바버 | 역자 이철우 | 김영사 | 정가 12,900원

원제 When Science Meets Religion

이 책은 진화론에서 양자물리학과 빅뱅에 이르기까지 가장 치열한 쟁점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각 장을 통해 물리학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빅뱅의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양자이론에서 나타나는 지식의 한계는 신의 증명인가? 신은 과학 법칙 안에서만 전능함을 나타내는가 또는 과학 법칙을 벗어나는가? 인간의 유전자 질환은 영적인 존재의 부정인가 아닌가?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의문과 갈등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저자 우중학 | IVP | 정가 13,000원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세기는 거짓일까? 진화가 명백한 사실이니 이 세상에 신이 설 자리는 없어졌다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아니면 인간은 만 년 전에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이 사실일까? 기독교에 적대적인 친구가 진화론을 무기로 신앙을 비웃거나, 신앙이 연약한 이들이 과학과 신앙에 관해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해야 할까?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는 복음적인 크리스천 과학자가 진화 창조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첫 번째 책이다.



창조에서 홍수까지

저자 양승훈 | CUP | 정가 16,000원

1980년부터 30여 년동안 창조론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연구하고 탐사했던 양승훈 교수가 창세기 1장-9장을 창조론 학자의 눈으로, 창세기 구절 하나하나를 성경 원어와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신학적 견해로 녹여 내어 섬세하게 풀어낸 책이다. 독자는 수십 년간 창조론 연구에 매진했던 저자의 방대한 지식을 고농축 영양식으로 만날 수 있다. 창세기를 과학 교과서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과학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 다시 말해 창세기로부터 출발해 새로운 과학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자칫 독단적이고 터무니 없는 상류과학을 만들 수 있지만, 과학으로부터 출발해 창세기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는 점진성을 전제하는 한 유익을 줄 수 있다.



케노시스 창조이론

저자 미하엘 베크, 위르겐 몰트만 | 편집 존 폴킵혼 | 역자 박동식 | 새물결플러스 | 정가 16,000원

원제 The Work of Love: Creation as Kenosis

『케노시스 창조이론』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11명의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들이 케노시스(kenosis, 비움) 개념을 기준으로 신학과 인문-자연과학 전반에 걸친 성과들을 제출한 학제 간 연구서다. 케노시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창조란 하나님의 자기 비움 행위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면서까지 세계 창조를 기뻐하신 사랑의 존재였음을 말한다. 케노시스 신학자들의 이런 통찰은 신학 영역을 넘어서 철학과 과학자들로 하여금 세계와 사회와 자연 현상 안에 내재된 사랑에 기초한 이타적 비움 행위의 흔적들을 추적하게 했으며, 이런 관찰과 통찰을 통해서 이들은 비움이 결국은 창조세계 전반에 프로그래밍된 원리라고 결론을 짓는다.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기다림의 끝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프랑켄슈타인



기다림의 끝

내가 생각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기대로 가득찬 시간이 있었습니까?

매일 매일 그런 기대와 기쁨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면, 저와 같이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산모들이죠. 임신 초기에는 초음파로도 사람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태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배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대와 감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외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 열한 번째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믿음과 그 생명이 열 달을 채우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기다림은 항상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릴 때도, 시험 치르고 결과를 기다릴 때도, 원하는 것을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릴 때도, 기다림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기다리기만 했지, 기다리는 동안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림이 빨리 끝나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바람은 이제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게는 재앙입니다. 열 달이 채워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아기를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이제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겁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값진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기다림이 즐거워지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 전에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무엇이 저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알게 된 것’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무엇을? 내 안에 나 외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요. 자장면을 즐겨 먹었습니다. 콜라도, 커피도. 그리고 보니 모두 검은 색이네요. 그렇지만 먹을 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먹어요. 제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 이후로는요. 변화가 생긴거죠. 그렇지만 사실, 아기가 나팔관에서 수정이 되고 약 일주일간의 여정을 거쳐 자궁에 착상이 될 때까지, 이 세상에 새 생명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신이 진단되기 훨씬 전이니까요. 물론 저도 몰랐죠. 저는 계속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끝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확신과 믿음은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열 달 후의 선물에 대한 믿음은 이미 받은 바와 다른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선물은 기다려야 주어지는데, 제 마음은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과 기쁨 속에 있으니까요.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의 환자입니다. 젊은 나이이고 흡연한 적도 없지만, 폐암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암이 진행되어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표적치료제라고 하는 것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능력은 한이 없는지, 그런 가운데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꺼져가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던 그녀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소망보다는 절망이 오히려 그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소망을 자기 자신에서 새 생명으로 옮기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달은 못 채 워도 가능한 달수까지 최대한 아이의 성장을 위해 자신의 치료를 중단하고 임신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합니다. 잘 기다릴수록, 잘 견딜수록 기다림의 끝에는 새 생명의 선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자신을 견디게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절망에서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기적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달을 채우고 아이는 세상을 보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산모로서 조금은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이지만, 새 생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이렇게 삶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잘 기다리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선물이 맞이해 준다는 믿음 속에서, 삶의 마지막을 영원처럼 살다갔다는 것이 가슴시리도록 공감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아직’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내안에 존재하는 믿음의 실체인 아기를 위해 커피도 끊었습니다. 라면도 안먹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의미가 들어있는 소리는 아기의 청각을 자극하여 뇌발달을 유도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의 감정을 담아 이야기하고, 제 마음의 진실을 아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조금해하고, 결과를 빨리 볼 수 없으면 참지 못하고, 기다릴 줄 몰랐던 제가 왜 이렇게 기다림이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열 달 후의 아름다운 선물에 대한 믿음은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입덧도, 다리가 부어오르는 고통도,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도, 모두 기다림의 결과에 비하면 스쳐 지나가는 가을바람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기다림이 설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중언어유·초·중·고등교육기관, 기독교 고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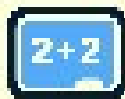
SICA 학생 모집

(장기 입학설명회) 일시: 11월 18일(수), 12월 18일(수) 오후 4시 / 장소: SICA

"교육이란 소중한 아이들의 인재를 바탕으로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는 믿음의 자정입니다. 고수는 황영이네, 수완은 이나고, 인제입니다. 방향 곧 정파야 세우, 교육의 방향키는 믿어 버치로 굳게 하세입니다. 자기 영혼의 불장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중심(Spirit, Confess, Christian Education)의 교육은 SICA에서 만나 보십시오."



초급 단계(초등)
전 과목에 100% 병과
1:1 맞춤



중급 단계(중등)
본일 양육자가 참여합니다. 본교
1:1 맞춤 교육 프로그램



숙사 단계(고등)
본일 양육자가 참여합니다. 양육자는
지역에 상주하며 1:1 맞춤

- SICA는 초·중·고등교육을 모두 겸하는 교육기관으로 준비합니다.
- SICA는 우리겨레를 위하여는 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 SICA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체육, 미술에 초점을 맞춰 공과수의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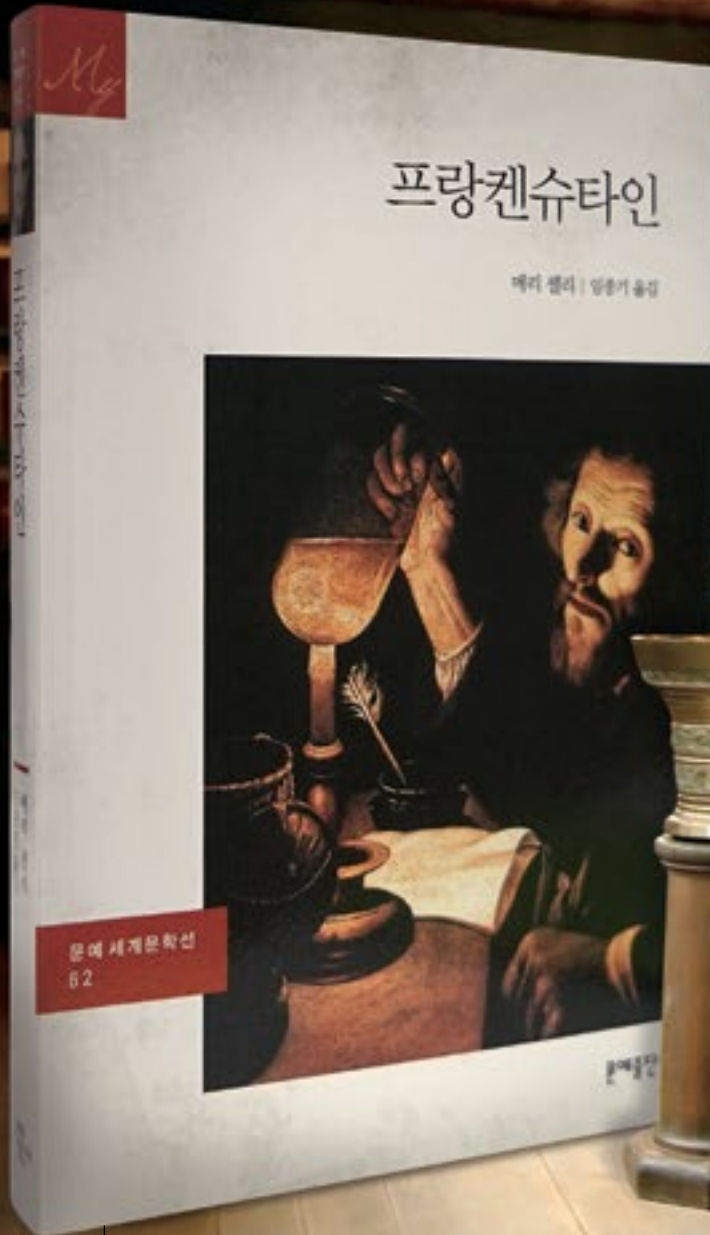
(기독교 고전교육 세미나) 안내

장사: 이종환(초·중등), 김성준(고·중등), 조인우(숙사), 고지영(숙사), 민정진(숙사) (세미나)
 강제 1. 기독교 고전교육의 중요성 소개하기 강제 2. 다산 교육의 철학 이해
 강제 3. 이중언어 학습의 중요성 강제 4. 입학절반의 중요성 이해하기
 일시: 11월 18일(수) 오후 4시 ~ 6시 / 12월 18일(수) 오후 4시 ~ 6시 / 장소: SICA (숙사) (세미나)
 대상: 학부모, 교회교육담당자, 기독교 교육에 관심 있는 분 접수: 전화 (02) 557-7710

서울 양재역피스 (유·초·중등) 매수리피스 (고등(기숙, 100% 병과 지도 가능))
 입학상담 02) 557-7710 홈페이지 www.sicakorea.org

땡스북이 만난 올타리 밖의 책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땡스북'은 사단법인 땡스기브에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제작합니다. '땡스북'에서 선정한 인문도서를 매월 '월드뷰'에서 소개합니다.



○ Recommend 프랑켄슈타인 메리 셸리 저 | 문예출판사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1818년 판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의 완역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831년 수정판 텍스트와 비교하면, 보다 급진적이고 작가가 애초에 의도했던 문학에 더 가까운 판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시대의 과학과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냈으며,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괴물을 통해 시대 가치의 허구성과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Thankgive's Think

네 놈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 복종해!

퀴즈를 내겠다. 술, 담배,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스포츠, 쇼핑, 일 등, 열거된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답은 모두 '중독'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다는 것. 중독이라는 단어가 붙기 전에는 즐기는 사람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었겠지만 중독된 이후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 소설에서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만든 사람, 이를테면 창조자이다. 괴물이 완성되기까지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이끌렸지만 막상 그가 완성한 괴물의 모습을 보는 순간 역겨워한다. 그리고 버린다. 버리기 전까지는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의 주인이었지만 버림받은 이후 괴물은 그 주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자신을 창조한 주인에게 사랑을 갈구하지만 거절당한 괴물은 자신을 버린 주인도 자신처럼 비참하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욕망이 때로는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스스로를 속게 만든다. 중독이라는 선을 넘게 되는 순간 인간의 욕망은 괴물을 탄생시킨다. 탄생된 괴물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 주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상황은 역전된다. 이전에 주인이던 자가 노예가 되고, 노예이던 자가 주인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친다. "네 놈이 나를 만들었지만 네 놈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 복종해!" 지금 나는 멈추지 않는 인간의 욕망으로 내 삶에 어떤 괴물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중독된 이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돌이키자. 내가 주인으로 살아도 짧은 이 인생을 노예로 살 수 없으니!

keyworld

창조 # 실패 # 사랑 # 책임지는 # 생명 # 복수 # 과학기술 # 상처받은 # 태어나버린

**THANKS
BOOK**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우리는 압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헤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교 지성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서평 『시골교회』, 『도시교회』

참된 교회를 찾아 나선 멀고도 긴 여정



뉴스앤조이 취재팀 저
뉴스앤조이



주재일 저
뉴스앤조이(토론타북)

손안에 편하게 잡히는 아담한 책이다. 『시골교회』, 『도시교회』 책 제목도 위압적이지 않고 마음이 편하다. 『시골교회』의 표지에는 시골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정겨운 모습의 한옥 교회가 자리하고 있어, 구수한 이야기 기보따리를 풀어놓으시려는 할머니 앞에 모여 앉아 눈을 반짝이며 두 귀를 쫄긋 세우던 옛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교회』라는 제목은, 분주한 도시의 일상 속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교회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기대하게 해 준다.

글들은 쉽게 읽혔으며,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마치 추운 겨울날 밖에 돌아다니느라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 주는 따뜻한 한 잔의 차와 같은 책이었다. 그러나 이 책들의 탄생 배경은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훈훈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의 마음을 무겁고 암울하게 만드는 것들이었다.

책의 탄생 배경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흥흥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심각성의 정도(과장된 것이지 사실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 ‘힘들기는 하지만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 등등의 주장들), 도래 시기(가까이 다가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고질화되었다’ 등등의 주장들), 위기의 원인(‘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동안의 성공에 도취되어 안주한 우리의 교만과 안이한 대처 때문이다’, ‘교회가 자기의 본질을 망각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방법과 목표를 추구한 결과이다’ 등등의 주장들), 해결방안(‘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봉사해야 한다’, ‘이제는 안으로만 향하던 교회의 관심을 밖으로 돌려 이 사회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에 주목하

고 동참하고 도와야 한다', '이 위기를 계기로 그동안의 비성경적인 모든 행태를 회개하고 거듭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등등의 주장들) 등을 두고 주장이 분분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해결방안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불안은 점점 커져 가고, 심지어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식의 자포자기적이면서도 냉소적인 신앙 형태도 늘어가고 있다. 이 책들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 책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들이 처한 절망과 좌절, 냉소와 허탈의 상황에서 잉태되어 그들에게 희망과 분발, 열정과 보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획되었고, 의도한 바를 다분히 이룬 것으로 보인다.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책이라면, 우선 교회의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회의 현실에 대한 엄밀한 실태조사를 한 후, 그 위기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려고 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교회

에 관한 정연한 이론적 연구물이 아니며, 교회 현상에 대한 치밀한 조사연구도 아니다. 교회의 위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이 책의 기획자들이 택한 접근법은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하며 직관적이며, 어찌 보면 순진(?)하게도 보인다. 이 책은 실제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존재의 의미와 보람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래서 무언가 한두 가닥의 실마리라도 잡은 교회들을 직접 찾아가 살펴보고 전하는 것이다.

누가 읽어야 하는가?

교회를 세울 뜻을 지니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모든 예비교역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목회 현장에 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관습적이고 정제된 목회 활동의 무의미성으로 인해 고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자 보람을 만들어 가기 위한 좋은 상담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목회로 안정되고 순탄한 길을 걷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살펴보



이창국 서울대학교 교육학박사, 실천신학대학원 신학석사, 공주대학교 교수, 기독교대학교 요셉학당 교장, 영월 주님의 교회 목사 등을 거쳐, 현재는 경북 봉화 소천의 산골짜기에서 호크마 기독교생활공동체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게 할 것이다. 교회에 대한 연구와 성찰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신학자들 또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몸부림치는 이 생생하고도 치열한 드라마에 무관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야 할 진정한 독자는 교회를 섬기며 그 안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분노하는, 그러나 교회를 떠나 결코 살 수 없는, 교회를 끄집이도 사랑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다. ‘교회의 문제들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담당해야 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일반 기독교인들이 관여하고 참견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제까지의 안이하고 초연한 인식으로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의 위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정기적으로 교회를 방문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서너 번은 된다. 이 정도면 교회에 대한 일종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교회에 대해 눈먼 사람들이다. 우선 자신의 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들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별다른 고민이나 반성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며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교회를 방문하고 살펴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며, 혹 그러한 기회를 가진다 하더라도 피상적인 관찰에 머무르기 쉽다(예컨대 교인이 몇 명이며, 건물이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선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헌금은 얼마나 많은지, 목사가 얼마나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인지 등등). 그런데 이 두 책은 기자들이 오랫동안(길게는 10개월에 걸쳐) 전국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살펴보고 파헤쳐서 요령 있게 정리해 놓은 것으로, 우리에게 정말 알기 힘든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것들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자부심,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소망을 회복할 수도 있으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교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검토해 보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요약

『시골교회』는 모두 17개의 교회를, 『도시교회』, 『도시교회2』는 각각 10개 교회씩 모두 20개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 지역과 형편, 사정과 규모, 역사,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교회들이라 어쩔 수 없이 구별되는 독특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모든 교회에서 공통되는 점들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공통점을 든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을 하나같이 자신들이 자리 잡은 마을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로 인해 그 마을과 지역이 행복해지는 존재 양식을 지향한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참으로 다양하다. 각 마을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도 하고(가게가 없는 섬마을에 다양한 생필품을 파는 인기 만점의 무인가게를 세우고 운영하는 아차도교회, 목욕탕이 없어 불편을 겪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교회 안에 목욕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천성교회, 지역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주부에 지역 상점들을 광고해 주고 쿠폰북을 만들어 전도에도 활용하는 상도제일교회, 제대로 된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을 동시에 교육하고 섬기는 아름다운주님의교회 등등), 사회적 약자들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며(맛벌이로 인해 방치된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활동, 이주민과 노숙자,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음식 등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고 건강도 돌보는 활동 등등),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삶의 비전을 제시 (공동체성 증진을 위해 신협과 생협 등을 조직해 운영하기도 하고, 친환경적인 농사법을 소개하고 이끌어 주기도 하며, 다양한 문화교실들과 도서관 등을 통한 봉사 등등)하기도 하는 등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을 섬기고 있었다.

또 다른 공통점은 결코 자신들을 내세우지 않으며, 그 활동들을 전도의 수단으로조차 활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지역민들을 섬기고 돕는 것 자체를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사실 이러한 진정성을 통해 더 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 나가고 있었다. 이들은 대형교회나 재정이 풍부한 부자교회들이 아니었다. 기껏해야 수십 명에서 백 명 내외의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교회 건물을 위한 재정 지출과 불필요한 낭비들을 줄여 나감으로써 이러한 봉사활동의 재원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끝으로 그들은 겸손했으며, 자신들의 성과와 활동에 안주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과연 교회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 또한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다.

주의할 점

우리는 여기에 소개된 교회들을 오늘날의 교회들이 지향해야 할 모범과 모델로 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할 수도 있다. 그것 역시 이 책의 선한 목적과 유익한 영향 중 한 가지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독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의 가장 큰 유익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을 읽으면서 작은 교회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에 감사하며 찬탄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고민 또한 더욱 커지고 깊어진다. 이 책을 정말 잘 읽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또 하나의 새롭고 진정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책을 기획하고 기록한 분들의 진정한 소원이 아니겠는가?

희망사항

지역교회는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뉘고 구별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몸인 보편교회는 나뉘고 구별될 수 없는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교회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모두 같거나 비슷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다 다르고, 장기가 다 다르며, 근육과 뼈가 다 다르듯이 말이다. 나는 교회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생각하고, 원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할지 상상해 보라! 그러한 그분의 생각과 뜻, 소원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몸인 우리 교회들의 성격과 특성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가 될 것이며,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가 될 것이냐?”(고전 12:17)고 반문하던 바울의 질책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는 『도시교회』에 소개된 교회 같지 않은(?) 순-쉽교회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이 교회 시리즈가, 조직교회뿐 아니라 제도권 밖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을 주기를 기대해 본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본디 조직이나 제도,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니 말이다. ☺

서평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생각을, 상상을 바꾸다

언제나 신간서적을 읽는 것은 마치 발자국 하나 없는 눈 덮인 하얀 들판에 최초로 나의 흔적을 남겨 그 대지를 점령(?)하는 것 같은 즐거움이 가득한 일이다. 이 책은 지난 8월 31일에 우리말로 출간된 것으로 정신, 심리, 뇌, 신앙, 교육 분야의 문헌으로는 최신 서적이다. 이런 최신 학문과 정보를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접하게 됨으로써 마치 이 분야를 내 것으로 만든 것 같은 기쁨을 안고 나는 서평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이며 약리학자인 티머시 R. 제닝스(Timothy R. Jennings)의 저작이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하나님과 뇌 그리고 문제의 발단'이라는 소제가 붙여졌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간의 뇌와 깨어진 사랑', '두려움은 불법 난입자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뇌가 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부는 '상충되는 하나님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회심한 사람의 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 '우리의 사고를 치유하기 위해 사랑은 계속 싸운다', '건강한 행동 노선을 선택하라', '지성을 사용하여 왜곡된 하나님관을 바꾸라', '진실을 받아들여야 회복이 가능하다', '증상뿐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넓히라', '하나님은 하늘 위의 경찰관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3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라'는 제하에 '용서는 죄를 막는 백신이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사랑과 진리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라', '부처와 예수: 준비된 뇌로 영원을 맞이하라'는 내용을 기술했으며, 부록으로 '뇌를 더 건강하게 하는 비결'을 다루었다.



티머시 R. 제닝스 저
윤종석 역
CUP
원제 The God-Shaped Brain

이 책의 주제어는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뇌'이다. 이는 정신의학 분야의 핵심 용어로서 사실상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이며, 뇌를 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신비의 영역

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 책은 뇌 자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그 뇌를 지으신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을 다룬 것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뇌의 기능이 변하고, 뇌가 변함으로써 신앙이 변하고, 신앙이 변함으로써 건강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설명하는 신앙서적이다. 따라서 건강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이 책을 통해 뇌 기능 변화의 비밀을 앎으로써 진정한 변화에 이를 수 있는 지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뇌와 행동, 행동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과학적이며 동시에 신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성경의 핵심인 '사랑'이라는 단어를 단지 성경에 나타난 주요 단어이자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의무,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의 태도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과학적이며 동시에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타인 중심의 사랑이 커질 뿐 아니라 예리한 사고력과 기억력까지 더 좋아



진다는 것이며,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실제로 치유와 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면 뇌에 두려움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그것은 결국 만성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져서 뇌의 신경회로 손상은 물론, 신체에도 질병이 초래된다고 이 책이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저자는 그 다른 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두려움, 불



전요섭 현재 성결대 교수이다. 총신대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석사)하고, 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과 단국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박사) 및 미국 Oral Roberts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를 비롯 45권의 저·역서가 있으며, 한국복음주의상담협회 이사장, (사)한국가정상담연구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 분노, 이기심, 정욕, 시기, 원한, 공격성 등의 죄악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뇌 손상이 심해지고 신체적인 건강이 빠르게 쇠퇴하여 결국에 질병에 노출되며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저자는 그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죄악된 생각은 해로운 신경회로를 가동시켜 전전두피질을 손상시키고 전전두피질은 편도체나 대뇌변연계를 자극시켜 뇌와 신체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그 피해는 뇌 손상을 비롯해서 뇌에 죄악된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신경회로가 더욱 강화되고, 죄악을 생각하는 영역이 더욱 커지게 되어 더 빈번하고, 더 많은 죄악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뇌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뇌의 운동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강화되어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물론, 치유의 기틀이 된다.

따라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생각을 바꾸고, 상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성품이 바뀌지 않으며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급작스럽게, 획기적으로 바뀌기보다는 서서히, 꾸준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금해서는 안 되며,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임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처럼 신앙과 뇌와 신체의 상관관계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따른 설계이며 그것을 과학이 비로소 밝힌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다양한 예화들은 저자 제닝스가 실제로 치료 현장에서 진료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사실이므로 이 책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물론, 많은 활용 자료를 제시한 것이 장점이며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제2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의 뇌(두개골 안의 신기한 회색질 덩어리)가 변화된다. 전전두피질이 강해지고 그 영향력이 나머지 뇌로 확대된다. 대뇌변연계는 진정되고 왜곡된 개념은 사라지고 공감과 이타심과 베품이 많아진다. 그리하여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책의 결론과도 같은 진술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고, 기쁨 가운데 살고자 하는데 바로 그 원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저자는 피력하고 있다. 사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 가운데 살고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그 사랑을 묵상해

야 한다는 내용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 온 말씀이다. 이는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고, 성경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뇌의 전전두피질을 강화시킴으로써 뇌와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치유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생소한 것이다. 뇌 과학과 지식에 어두운 일반인으로서의 과학적 이해가 부족하기에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난해하고 모호한 표현인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뇌 과학자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그로써 얻는 상당한 유익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것은 이 책의 유익이 아닐 수 없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이 책을 통해 해결된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과 명상에 대한 차이인데, 눈을 감고 신체기관을 이완시키는 공통점을 제외한다면 묵상이 단지 그리스도라는 대상 말고 더 이상의 차이는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 동양 명상, 초월 명상, 득도, 해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명상은 뇌의 이원적 상태의 번뇌를 피하고자 스스로 인위적 도취감을 만들어내고, 개인적 현실로부터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명상은 명상자의 성품에 존재하는 이기심과 두려움의 실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제닝스는 ‘명상은 뇌의 알파파(꾸꾸는 상태)와 세타파(의식이 몽롱한 상태)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반면, 베타파(정신집중 활동)를 억제한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명상은 도파민이라는 뇌 화학물질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우뇌가 지배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자의식을 잃고 시공간 의식이 약화되며

분별력이 떨어지고 심상(imagery 心想)이 강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정도를 생각했다 하여 기독교의 묵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지론이다. 따라서 제닝스는 기도나 묵상을 명상과 절대로 동일시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불행하게도 명상은 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우뇌의 지배력이 커지고 그 결과로 이성 및 분명한 사고와 개체성을 상실하여 초월적 도취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뇌의 균형적인 작용으로서 생각을 무(無)에 집중시키거나 머릿속을 비우거나 주문을 외우듯 말을 되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재와 임재,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는 텅 빈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는 것으로 뇌의 균형적 작용과 안정감으로 인해 뇌 건강과 평안을 얻게 한다.

이 책의 부록은 본문의 마지막에 덧붙여진 부분이라기보다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적인 부분으로서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부록은 부제 “뇌를 더 건강하게 하는 비결”에 걸맞게 앞서 다룬 본문의 내용을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뇌 과학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의 내용을 독자들이 읽기에 매끄럽게 기술적으로 잘 옮긴 것으로 그것은 이 책의 상당한 장점에 해당된다. 또 책의 본문을 읽기 전에 뇌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과 이 책에서 주로 사용되는 뇌 관련 용어 14개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본문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독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였다고 볼 수 있다. 

책 소개 『문서 선교사, 웨슬리 Wentworth』

한국 기독교학문세계의 비밀 주머니

한 사람이 있다. 누구인지 모를 이분에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석학들이 너도나도 감사를 표한다. 세계관에 관심 많던 내가 읽은 책들 속에 자주 등장하던 이름,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분, 다양하게 불리지만 누구에게나 친구이자 멘토이며 한국 기독교학문의 핵심고리인 문서 선교사 웨슬리 Wentworth(Wesley Wentworth)다.

십여 년 전, 그분의 칠순에는 세계관동역회에서 『사랑해요, 웨슬리』(예영커뮤니케이션)를 만들어 헌정하였고, 팔순을 넘긴 웨슬리 선생님의 한국 선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문서선교사 웨슬리 Wentworth』는 그분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 중 단 열여섯 '분'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 속의 기고자들은 지금보다는 아주 탱탱한 청년의 모습으로 처음 만난 웨슬리를 회고하며 갈 길을 다짐한다.



손봉호, 김민철, 김병연, 김정효, 박상진, 박희주, 방선기, 배종석, 송인규, 신국원, 양승훈, 이국윤, 장수영, 최예정, 최태연, 홍병룡 지
IVP

웨슬리와 그의 친구들

그분의 오랜 친구들은 학문에 목말라 하던 청년의 때에 그를 만나 이제는 각처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분들을 옆에서 지켜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나는 종종 재미있는 모습을 목격하곤 한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공통적인 반응은, 웨슬리 선생님의 등장에는 반가움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돈다. 잠시 후, 웨슬리 선생님은 가볍지만 헤어질 듯한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고는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시며 ‘그저 기다린다’. 그러면 모두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종이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거절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숙제가 주어진다. 이후 세미나 등의 새로운 장이 열리면 어김없이 그곳에서 나타나 새로운 친구를 만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을 던진다. 너의 공부나 하나님 나라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나보다 훨씬 한국에서 오래 사셨으면서도 한국말을 못하신다는 거다. 그런 웨슬리 선생님이 가장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

하시는데 한마디, “필요 없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면 낮잠 잘 곳을 찾아 가방이나 겹옷을 접어 ‘어디서든’ 눈을 붙이신다. 음료를 드리면 마다하고 오직 물을 찾으시고, 식당에서는 가장 저렴한 메뉴를, 편의점 샌드위치를 즐기시며, 체크남방에 매시즈 한결같은 패션을 추구하는 이분에게 뭐라도 챙기거나 선물을 드려도 한결같은 대답, “필요 없어요.” 자신의 삶을 위해 가장 최소한의 것만 사용하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검소한 삶을 보며, 우리는 도대체 살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강박한지 짝한다.

사역은 이렇게 하라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50년이란 시간 동안, 학교나 교회를 세운 것도, 후원하는 조직도 없이 본인이 벌고 저축하신 것이 전부다.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쓴 것도 아니고 그나마 갖고 있던 책의 일부도(동역회에 있던) 처분(?)했다.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국내외 그리스도인 학자들을 찾아내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하고 그냥 주신다. 그렇게 전달하고 또 기다린다. 그것이 그의 사역이다. 누구의 인정도 칭찬도 관심 없다. 기념회에서 그가 말한 말처럼 사역의 포인트인 ‘keep going’ 하며 말이다.

그러나 그의 그런 사역으로 한국에 ‘세계관’이라는 말이 시작되고,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세계관으로 신앙과 삶에 적용하는 ‘기독교적’ 학문의 지평이 열렸으며, 이에 기초한 ‘

기독교적’ 교육과 수업이 시작되었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지금에 이르렀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기독교적 대응운동을 한 쉐퍼에게는 ‘비밀주머니’가 있었다고 한다. 바로 그의 아내인 이디스 쉐퍼란다. 한국의 기독교 학문세계의 비밀주머니는 바로 웨슬리 선생님이다.

연약함, 우리시대에 배워야 할 유일한 것

우리가 잊고 지낸 삶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말하면서도, 내심 유명해지고 잘 살길, 성공하길 바란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 다를 바 없는 것을 소망한다. 웨슬리 선생님의 삶은, 부족하고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세상과 교회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 진짜 필요를 잃어버린 우리가 잊고 지낸 우리의 민낯이고 연약함이다. 복음전파에는 순교자들의 피와 선교사들의 이름만 있지 않았다. 이름 없이 증인의 삶을 살아간 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적 선교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에, 소리 없이 지금도 변함없는 행보로 도전하는 꼭 필요한 한 사람, 웨슬리 선생님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 속에는 그분의 친구들이 각 분야에서 꼭 읽길 바라는 추천 도서목록이 선물로 있다. 마치 그분의 삶처럼. ☺



신효영 건국대학교 시각멀티디자인학과 졸업, 총신대학교에서 기독교문화교육을 공부했다(M.ed). 아가페출판사 편집부,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이자 월드뷰 편집인이다. 문화에 관심이 많아 언젠가는 크게 일낼 날만 기다리며 여전히 꿈꾸고 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5년 9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3,860,000	인건비	일반급여	3,600,000
	임원회비	660,000		기타급여	1,554,000
	일반회비	5,805,000		소계	5,154,000
	기관후원금	4,4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705,500		사무실관리비	324,000
	학술지원금	1,000,000		통신비	181,560
	CTC후원금	320,000		우편료	130,350
	VIEW후원금	6,320,000		소모품비	243,650
				비품	3,000
				식비	264,450
		복리후생비		716,310	
		퇴직연금(중간정산)		703,834	
		회계용역비		110,000	
		도서구입비	654,400		
		기타	419,366		
		소계	4,300,920		
			연구지원비	학술지원금	1,000,000
				CTC후원금	299,175
	소계	23,120,500		소계	1,299,175
기타수입	예수금	365,17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이자	1,915		발송비	400,780
	소계	367,085		소계	2,900,78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행사준비	42,900
	세계관기타수입	25,000		세계관기타	0
	소계	25,000		소계	42,9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학회	학술지심사료	0
	자료집판매	320,000		학술지 인쇄비	0
	학회기타수입	1,000,000		학술지 발송비	0
	학술지게재료	3,310,000		학회기타	100,000
	소계	4,730,000		소계	100,000
당월 수입액	28,242,585	당월 지출액	13,797,775		
전월 이월액	35,307,796	차월 이월액	49,752,606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5년 9월 30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1,100,000	인건비	직원급여	1,900,000
				기타급여	300,000
				소계	2,200,00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도서판매비	693,100		편집비	300,000
	예수금	172,380		디자인비	924,000
				인쇄비	2,222,660
				소계	3,606,660
	소계	1,100,000	미디어아카데미	DM발송비	0
				우편료	1,50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경상비	소계	1,500
	도서판매비	693,100		복리후생비	299,080
	예수금	172,380		퇴직연금(중간정산)	622,820
				회계용역비	110,000
				도서구입비	54,900
				회의비	37,000
				소계	1,123,800
	소계	3,365,480	기타	세금	104,190
				기타	1,50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기타수입	0	미디어아카데미	소계	105,690
	미디어장학등록	0		미디어행사준비	239,960
	소계	0		미디어기타	45,500
			소계	285,460	
당월 수입액	4,465,480	당월 지출액	7,323,110		
전월 이월액	37,414,966	차월 이월액	34,557,336		

※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30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강현, 김교은, 김봉현, 김재별A, 김재별B, 김성욱, 김영주, 김장원, 김진호, 김태영, 김형근, 김희원, 박상희, 박원근, 박지민, 생명의강, 성관수, 안용주, 영은사, 유성욱, 윤혜경, 이수형, 장재수, 정세열, 정필규, 정필태, 조성진, 조영래,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함께하는교회, 황기희 5천 공승근, 구성덕, 구재현, 권영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홍,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방민, 김상욱, 김성은, 김성진, 김승택, 김영옥, 김은경, 김정영, 김정실, 김재우, 김태영, 김태원, 김재윤, 김희아, 김현경, 김해창, 노승욱, 박광재, 박상균, 박승룡, 박천규,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사, 송호욱, 신기혁, 심정희, 안성희, 우수민, 유은자,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유준영,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만희, 이수인, 이영홍, 이은미, 이인수, 이향숙, 임소연, 임찬석, 임효숙, 장한일, 전광학, 전정진, 전종국, 정봉현, 정한경, 조사무엘,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고상선 김나실 김성욱 김은민 김재우 박대희 박현빈 방선기 이병주 이서희 이은수 이지은 전영식 정요한 정원길 정찬주 진영규 1만 David Han, Lee chun hee suk, 가월현, 강동진, 강민창, 강석현, 강승모, 강연정, 강은정, 강은주, 강혜영, 강효식, 고길현, 고선옥, 고세훈, 고연경, 고재호, 곽은이,곽정인, 구준희, 권경호, 권민우, 권순범, 김원명,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교은, 김광순, 김규옥, 김근배, 김기현, 김남일, 김남진, 김동준, 김동찬, 김동환, 김막이, 김미혜, 김민성, 김범식, 김병국, 김보경, 김봉래, 김상범, 김성경, 김성규, 김성민, 김성인, 김성진, 김세영, 김세연, 김세준, 김소과, 김수진, 김승호, 김아름, 김이론, 김양호, 김영숙, 김영호, 김요한, 김용석, 김윤권, 김윤정, 김은덕,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은희,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장준, 김장진, 김정호, 김경희, 김중국, 김주영, 김준희, 김홍록, 김지민, 김진성, 김지은, 김창현, 김철수, 김태홍, 김태호, 김만일, 김 혁, 김현정, 김형일, 김혜정, 김홍섭, 김홍재, 김효식, 김효숙, 나동훈, 나은숙, 남서희, 노아름, 리영환, 류지호, 류현모, 모상근, 문재환, 박광근, 박경원, 박기연, 박승안, 박두석, 박두한, 박복애, 박상호, 박성인, 박승호, 박시윤, 박용성, 박원근, 박은영, 박은주, 박종국, 박준원, 박준모, 박준영, 박지현, 박지연, 박지희,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해일, 박현경, 박희주, 배성진, 배세연, 배아름, 배인교, 배지연, 백경은, 백은석, 백현준, 변영승, 변희희, 부천평안교회, 서유미, 서정연, 서화진, 성광원, 송조화, 손영규, 손하은, 손현택, 송종철, 송철호, 송태상, 송현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상자, 신자영, 신진선, 신찬우, 신현정, 신현주, 신형근, 신희기, 신효영, 심명선, 심재훈, 안남주, 안병열, 안 석, 안영희, 안용준, 양성건, 양행모, 양혜연, 양혜원, 양희석, 연해민, 오경옥, 오성호, 오은열, 오지수, 우현기, 유건호, 유경성, 유경숙, 유기남, 유기성, 유동준, 유상원, 유선덕,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익신, 유지환,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유희진, 윤명실, 윤상현, 윤숙자, 윤진석, 이갑두, 이 강, 이경숙, 이경직, 이계실, 이관철, 이규현, 이기섭, 이기훈, 이길형, 이덕영, 이동훈,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규, 이상기, 이상우, 이상수, 이상찬, 이상환, 이선복, 이상수, 이수연, 이승연, 이은희, 이은우, 이은진, 이연경, 이연의, 이요한, 이용훈, 이원배, 이원재, 이원준, 이문석, 이문재, 이윤희, 이은혜,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현, 이종국, 이종철, 이종환, 이준성, 이자숙, 이지연, 이지연, 이지훈, 이진영, 이학선, 이하리, 이하정,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민, 임동진, 임미림, 임소현, 임수연, 임우진, 임유택, 임재광, 임지연, 임춘택, 임현영, 장경근,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욱경, 장용훈, 장은혜(양승태), 장인숙, 장진수, 장창수, 장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규, 전장현, 전중화, 전진양, 정경식, 정종섭, 정세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성숙, 정진우, 정현우, 정현원, 제영규, 조경덕, 조미연, 조백형, 조성은, 조승배, 조용배, 조윤현, 조은국, 조은상,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주영, 조하람, 조현용,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승두, 최성호, 최세진, 최승호, 최영, 최영순, 최원명, 최종민, 최진우, 최한빈, 최현식, 최현정, 최혜경, 추진연, 태영숙, 하성만, 하진호, 하한진, 한미영, 한혜실, 한희수, 허 연, 허찬영, 허 현, 현승진, 현하나, 홍경화, 홍구화, 홍대화, 홍선호, 홍세기, 홍양희, 홍정석, 홍준호, 황기철, 황도웅, 황세환, 황의서, 황인경,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4천 박시라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정상선, 조영숙, 최동원 2만 강대훈, 강윤관, 김세광, 김용식, 김은정,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마민호, 박계호, 배성민, 변우진, 석지연, 심성석, 옥재호, 우시정, 이 건, 이명희, 이인아, 임 영, 조창근, 한진영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병룡, 문석연,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오익석, 오한나, 우병호, 이예진,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조우성, 최용준, 추태호, 황정진 4만 송대연, 이종철 5만 김민철, 김상락, 김성민, 김시호, 박문식, 백인숙, 서진희, 신국원, 양상만,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최원일, 한윤식, 현은자 5만5천 배호진 6만 강진규, 이근호 7만 최태연 8만 권경아 10만 김미영, 김의원, 류혜옥, 박상은, 송보호, 손영옥, 송인규, 유한철, 전광성 12만 강석필 15만 강상우 21만 정영록 30만 김승욱 300만 무명 600만 박은철

계 17,670,500원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글로벌한가죽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길침례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유혜교회, 부천참빛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언약교회, 예성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활동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40만 삼일교회
50만 사랑의교회
130만 주님의십자가교회

계 5,450,000원

광고후원

삼성전자, I&S법무법인, 흥성사, DCTV, 오후우스코리아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검색하세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친구찾기’ → 검색 : (ID)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친구추가, 채팅창 이용

■ **페이스북**

‘친구찾기’ → 검색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좋아
요’ 누르기, 팔로우!

[임원] 2015년 제2차 실행위원회의

세계관동역회 하반기 사역과 내년 정기총회 및 사역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실행위원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신효영 간사)

- 일시 11월 6일(금) 오후 6시~9시(6시~7시 저녁식사, 7시~9시 회의)
- 장소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합정역 7번출구)

[제32회 기독교학문학회] 융복합과 기독교

기독교학문연구회는 각 학문분야별 기독교적 학문연구 발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연2회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융복합과 기독교학문”을 주제로 하여 11월 7일(토) 성균관대학교에서 실시합니다.

- 일시 2015년 11월 7일(토)
- 장소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퇴계인문관
- 주제 융복합과 기독교학문
- 패널 자연과학 (박희주_명지대 교수), 인문 (손화철_한동대 교수), 사회과학 (김홍섭_인천대 교수), 공학 (박문식_한남대 교수)

- 당일 일정
09:30~15:00 등록(호암관 1층 입구)
10:00~12:00 대학원생 논문발표 세션(호암관 4층)
12:00~13:00 오찬 /등록2(호암관 1층 입구)
13:00~15:30 개회 및 시상, 주제강연(퇴계인문관 4층)
15:30~17:50 세션별 발표회(호암관 3,4층/5층)
18:00~19:00 만찬(인근식당)

※ 등록비는 당일 접수이며, 일반/교수/박사는 20,000원/학부 및 대학원생은 10,000원 입니다.

- 문의 02-3272-4967 (담당: 신효영 간사),
카카오톡ID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한동대 포럼] 동성훈과 한국교회의 과제

한동대학교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는 “동성훈과 한국교회의 과제” 포럼이 있습니다.

- 일시 11월 14일(토) 10시~17시
- 장소 한동대학교 오디토리움(경북 포항)
- 주제 동성훈과 한국교회의 과제
- 문의 054-260-1311(한동대)

[목회자를 위한 세계관 세미나]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역자 및 목회자를 위한 세계관 강좌입니다. 세계관을 조직신학 관점에서 접근한 강좌, 실제 사역에서 적용하시는 분들을 모시어 듣고 서로 고민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제 교회, 세계관으로 바로 세우기
- 일시 11월 16일(월) 오후 1시~5시(4시간)
- 장소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합정역 7번출구)
- 수강료 10,000원 (신청접수는 홈페이지)
- 문의 02-754-8004,
카카오톡ID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이후 직장인 대상 세미나도 진행합니다.

[교육분과 주최] 교육학술세미나

“국가수준 예술교과의 기독교적 재구성”

세계관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에서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상의 예술교과에 대한 기독교적 재구성 방향성 모색 및 구체적 실천전략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11월 21일(토) 10시~16시
- 장소 총신대학교 카펠라홀 (서울시 동작구)
- 참가회비 30,000원(학부생 20,000원, 사전접수 25,000원) (사전접수마감 11/13, 신한은행 602-12-614729, 예금주: 박영주)
- 문의 joycepk728@gmail.com
카카오톡ID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학원생 모임]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공고

젊은 신진학자들을 위한 자리,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이 이번 달에는 학회로 대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

-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문의 02-754-8004

[정기총회 공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는 2015년도 정기총회를 실시합니다. 한해의 사역을 돌아보고 신년의 비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오셔서 동역의 기쁨을 나누기 바랍니다.

- 일시 2016년 1월 25일(월)
- 장소 별도공지

1
2
3 사무국 워크샵
4
5
6 2차 실행위원회 회의
7 제2회 기독교학문학회 / 성균관대학교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공동칼럼 발행
8
9
10
11
12
13
14 [포럼] 동성혼과 한국교회의 과제(한동대)
15
16 [목회자 대상 세미나] 교회, 세계관으로 바로세우기(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17
18
19
20
21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 교육학술세미나 국가수준 예술 교과의 기독교적 재구성(총신대)
22
23
24
25
26
27 월드뷰 12월호 발행
28
29
30

도리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죠.
 사실 지금이라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때 미안한 일은 축하할 일들을 마음과는 다르게 표현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빈손이 축하의 마음을 대신하기 미안하다는 것을 아는 나이였으니까요.
 넉넉하지 못해도 남들만큼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입장은 떳떳합니다.
 하지만 빈손일 때는 줄 수 없어서 눈이 시리고 나눌 것이 없어서 마음이 먹먹하기만 하죠.

더 미안시린 일은,
 축하를 표현할 수 없는 손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져만 가는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도리가 한없이 늦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베푸는 부모의 손길이 너무나 당연했고 거저인 줄 알았는데
 나이 먹고 바로 살아 보려 하니
 그새 작아진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비단 부모와 자식뿐 이겠습니까.
 시간의 먼지가 쌓이고 켜켜이 인생이 찰수록
 사람됨 도리를 하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지켜야 할 가치와 정신을 지키고
 마땅히 행할 일을 하고
 그러다 손해보고
 그 마음의 중심은 낮은 자리로
 나와는 다르다 하여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도리가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 속, 우리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道)에 선 사람이니까요.

2015 학술대회

국가수준 예술 교과과의 기독교적 재구성

2015년 11월 21일 (토)

오전 10:00 ~ 오후 16:00

총신대 카펠라홀

주최 —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분과

주관 — 총신대 부속유치원, 샘물중고등학교,
별무리학교, ACTS 교육대학원

주제발표 1: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술

주제발표 2: 예술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기독교 교육적 함의

누리과정 예술 영역의 기독교적 재구성

초등학교 미술교육과정의 기독교적 재구성

중고등학교에서 예술교과통합을 통한 기독교적 인성수업 개발

초청대상 각급 학교 기독교사, 기독교교육학과 대학원·학부생

참가회비 3만원 (학부생 2만원, 사전 접수 2만 5천원)

- 점심 식사 및 자료집 제공 / 사전 접수 마감: 11월 13일(금)

- 입금계좌 : 신한은행 602-12-614729 (박영주)

- 문의 : E-mail joycepk728@gmail.com

(사전 접수 확인과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과병원에 간 환자

환자: “이 하나 뽑는데 치료비가 얼마예요?”

치과의사: “2만원입니다.”

환자: “아니, 이 하나 뽑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그렇게 비싸요?”

치과의사: “원하신다면 천천히 뽑아드리겠습니다.” ☺

